Entertainment p/21



시작부터 파행빚은 대종상

metro®

메트로 2014년 10월 29일 수요일 제3083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KIA 감독에 김기태 선임



제주 전국체전 개막 화려한 축포 28일 오후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이 '어멍의 너른 품으로'를 주제로 열린 가운데 화려한 개막 축포가 터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 '생명·화재' 지분 인수

각 0.1% 매입 추진위해 금융당국에 법적검토 요청
"개인적 투자" 해명 불구 삼성그룹 지배력강화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를 염두에 둔 행보를 잇따라 하고 있다. 28일 삼성그룹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인수에 대한 법적 검토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6월 말까지 보유하던 삼성자산운용 지분 7.7%를 삼성생명에 넘기고 확보한 현금 252억원으로 삼성생명·화재 지분을 각각 0.1%씩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이들 기업과 지분 관계가 없지만 삼성생명이 삼성 지배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등으로 이뤄지는 순환출자다. 즉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이 커지면 어지간한 변수가 발생해도 지배구조나 후계 구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최대주주가 이건희 회장에서 제일모직으로 바뀌는 지분 변화가 생기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를 받는다.

제일모직이 지주회사가 되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던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20% 이상 늘리거나 매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0.1%에 불과한 소수 지분일지라도 이를 사들이면 삼성생명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화재의 특수관계인에 오른 뒤에는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만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대 대해 삼성그룹 관계자는 "0.1% 지분을 놓고 지배력이나 후계 구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부회장의 개인적인 투자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부회장이 이번에 지분을 취득한 뒤에 추가로 주식을 사들일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전날 삼성그룹 영빈관인 서울 이태원동 승지원에서 외국 금융회사 대표들과 만찬을 했다. 삼성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중국, 일본의 주요 금융사 사장들을 초청한 것이다.

승지원은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생전에 살던 한옥을 영빈관으로 개조한 곳으로 선대 회장의 유지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승지원으로 불린다.

이건희 회장은 과거 해외 귀빈을 만날 때 승지원을 주로 이용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제프리 이멜트 GE 회장 등을 이곳에서 만났다.

이 회장이 서초사옥에 출근하지 않는 날 집무를 보거나 경영진과 중요한 회의를 했던 장소도 승지원이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숭례문 단청 부실 화학안료 사용

인건비도 빼돌려… 단청장 등 13명 입건

2008년 화재로 소실됐다 5년간의 공사 끝에 복구된 국보 1호 숭례문의 단청에 부실한 화학안료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숭례문 단청 공사를 하면서 사용금지된 화학안료와 접착제를 쓰고 인건비를 줄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홍창원(58) 단청장, 제자 한모(4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통기법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문화재청 직원 최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사 과정을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혐의로 감리사 이모(50)씨 등 2명도 입건됐다.

홍 단청장 등 6명은 2012년 8~12월 숭례문 단청 복구공사를 진행하면서 화학안료인 지당과 화학접착제인 포리졸을 사용, 단청이 벗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홍 단청장은 공사비 7억3000여만원 중 인건비 3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기법에 대한 연구와 검증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단청장과 문화재청 공무원, 감리사들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라며 "다른 국가 문화재의 수리·복구공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ydh@

더 알찬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제2롯데월드 균열 해명 석연찮다



기자 수첩
조 현 정
<정치사회부 기자>

제2롯데월드의 바닥 균열 해명에 국민들이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임시 개장한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몰 저층부에서 광범위한 균열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데 대해 롯데건설 측이 "디자인 컨셉"이라며 안전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한 시민단체는 롯데월드몰 5~6층 식당가 통로 바닥에 금이 간 사진을 공개하며 부실 공사와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완공이 얼마 안됐는데 표면에 금이 간 것은 정상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2롯데월드 측은 "균열은 1930~1980년대 서울의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한 디자인 콘셉트로 구조적 균열이 아니며 건물의 안전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울 3080' 거리는 설계 때부터 간판도 옛 모습을 연출했고 금이 간 길의 모습도 당시의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시멘트 몰탈 시공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도한 것"이라며 "그 위로 투명 코팅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5층 식당가 바닥에는 명함 1장이 꽂힐 정도로 균열이 있었다. 투명 코팅을 했다면 명함이 꽂히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진짜 안전과 무관한 것인지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

균열 논란에 서울시는 이날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롯데 측 주장이 맞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시는 추가 현장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임시 개장 기간 중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각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부로 제2롯데월드를 승인했다. 임시 개장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한번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 문제는 민감한 만큼 국민들의 관심 또한 크다. 일단 논란을 잠재우자는 식은 안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 처리"

박 대통령 국무회의서 당부
"늦어질수록 부담 늘어나"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 시기에 대해 "정부는 금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이 증가하고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 연금학회와 안전행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했고, 어제(27일) 여당에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혁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헌신해온 공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희호 여사, 청와대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국가 혁신 차원에서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며 "사실 공무원연금 문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재정 적자의 심각성이 예측되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근본적인 처방을 계속 미뤄오다가 현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고 또 미룬다면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부채가 484조원이나 앞으로 발생할 것이므로 국민 1인당 945만원에 해당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며 "이제라도 사회적 중지를 모아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황준국 中 방문…"북핵 문제 전반 협의"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8일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차 중국으로 출국했다.

황 본부장은 오는 31일 베이징에서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을 포함해 북한·북핵 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황 본부장이 우 특별대표와 만나는 것은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그는 베이징 방문에 앞서 28~30일 선양을 찾고 주선양 총영사관이 중국 동북 지방의 한반도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여는 '한반도 연구 포럼'에 참석한다. 포럼 참석 전후로 이 지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나는 한편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시도 방문한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인하해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8일 공무원·기업의 채용과 대학의 수시 입학 등에 활용되면서 응시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응시료 인하를 권고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08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험을 직접 시행하고 있으며 응시료는 올해 기준으로 고급 1만9000원, 중급 1만7000원, 초급 1만2000원이다.

김포 월곶면 일대 등 군사보호구역 완화

●국방부는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과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건축 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신축이 불가한 통제보호구역에서 해당 부대와 협의해 신축할 수 있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면적은 월곶면 일대 3만3687㎡, 소초면 일대 1만2834㎡ 등 4만6521㎡(1만4072평)이다.

靑 "대통령, 세월호 직후 7시간 7차례 지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동안 7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전화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뒤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차례 지시했다.



김기춘 "인사 미흡 죄송… 비선 개입은 없다"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 김기춘(가운데)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오른쪽) 국가안보실장, 박종준(왼쪽) 경호실차장 등 관계자들이 출석해 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나름대로 인사수석실을 설치해서 충실한 검증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한 점이 나타나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 "다만 공식 이외의 인사가 (인사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비선라인의 인사 개입설을 부인했다. /뉴시스

'先 특별법 제정 後 유족 참여' 협상 검토

野·세월호 유가족, 진상조사위 구성 합의시 특검후보 추천 논의

새정치민주연합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유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되 특별법에 유족이 원하는 내용을 담는 조건으로 특검 후보군 추천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법 처리 시한(10월 31일)을 사흘 남겨둔 상황에서 야당과 유가족이 특별법 제정에 먼저 합의해 진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특별법 타결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 안 되면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우면) 세월호 특별법을 먼저 처리하고 특검 추천은 나중의 일이니까 그 때 가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타결은 함께 하고자 한다"며 "유족의 특검 후보군 추천 참여 문제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하고 나머지는 정책위의장 중심으로 협상하려 한다"고 말해 '분리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월호 유가족 측도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대리기사 공동폭행 혐의>

김현 의원 기소의견 송치

사건 연루 세월호 유족 4명도 함께… 실종자 시신 102일만에 추가 수습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이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지난달 17일 오전 0시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의원 역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의원의 경우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당해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김 의원은 줄곧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촉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그러나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씨로부터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싸움을 촉발했고, 유가족들이 이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일부 가담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집단 폭행으로 이씨의 대리운전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보고 유가족 4명과 김 의원 모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반면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을 때려 치아를 부러지게 한 혐의를 받은 행인 정모(35)씨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30분께 침몰한 세월호 4층 중앙 여자화장실에서 단원고 2학년 황 모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이는 지난 7월 18일 오전 세월호 식당칸에서 여성 조리사가 발견된 이후 102일만으로 이제 남은 실종자는 9명으로 줄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양구 '펀치볼 시래기' 수확 강원 양구군 해안면 농민들이 28일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펀치볼 시래기' 생산을 위해 무청을 비닐하우스 건조덕장에 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 롯데월드몰 전면 개장… 교통단속 강화

경찰은 30일 송파구 롯데월드몰 전면 개장을 앞두고 잠실역 사거리 일대에 대한 맞춤형 교통관리에 나선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롯데월드몰 저층부 3개동 974개 점포가 전면 개장되면 올림픽로(잠실역↔송파구청)·송파대로(석촌호수북단↔잠실역)·잠실역 사거리 양방향의 교통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시발전연구원과 대한교통학회에 따르면 롯데월드몰 전면 개장 이후 잠실역 사거리의 경우 주말 혼잡 시간대 교통량이 평소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출입구가 있는 올림픽로는 31%(평일)~49%(주말)까지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롯데월드몰 주변 38곳에 평상시, 주말·공휴일, 개장·세일 등 단계별로 교통량에 따라 경력을 배치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교통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반갑다 추위야" 스키장 첫 제설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원 일부 지역이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인 28일 용평스키장이 첫 인공제설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개장 준비에 나섰다. 용평스키장은 이날 기온이 영하 1도를 기록한 자정을 넘어선 시각부터 핑크와 옐로 슬로프에 설치된 60대의 제설기에서 일제히 인공눈을 만들어 뿌렸다. 스키장 측은 오는 11월 8일이나 15일께 개장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콜라·커피 시연' 700억어치 판매한 일당 적발

'콜라·커피 시연' 수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해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수백억원 어치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헛개나무와 밀크시슬 추출물로 만든 알약 제품을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대만 국적의 A업체 대표 진모(55)씨 등 업체 5곳의 대표와 직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대문구와 마포구 일대에 사무실과 홍보관을 차려놓고 여행사를 통해 이곳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국내 중소 생산업체에서 납품받은 제품을 원가보다 최대 18배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 등으로 688억원어치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윤다혜기자

지정취소 대상 자사고 '마지막 기회'

서울시교육청, 오늘 오후 4시까지 개선 계획 제출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9월 1차 지정취소 대상으로 발표한 8개 자율형 사립고에 운영 개선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해당 자사고들이 지정취소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공문과 함께 송부된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는 "학교별로 미흡한 평가를 받은 내용에 대한 개선 계획을 간략하게 기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공문에 답변 시한을 29일 오후 4시까지로 명시하면서 "행정 처분을 확정 짓기 위한 최종 참고 자료"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들의 개선 계획에 따라 30일 또는 31일 발표할 지정취소 학교에서 일부 제외될 수도 있다"며 "개선 의지에 따라 2년간 지정 취소를 유예하는 내용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덕성여대 부속유치원, 개원 30주년 기념식

덕성여대 부속유치원이 최근 교내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은수 덕성여대 부속유치원장은 기념식에서 "부속유치원과 유아교육과는 앞으로도 유아 교육과 우수한 교사 양성에 힘쓸 것"이라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최고로 손꼽히는 유치원, 유아교육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속유치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제작된 기념 도서 '덕성여대 부속유치원의 봄·여름·가을·겨울'의 출판기념회도 진행됐다.

범죄자 식별 얼굴 사진 3D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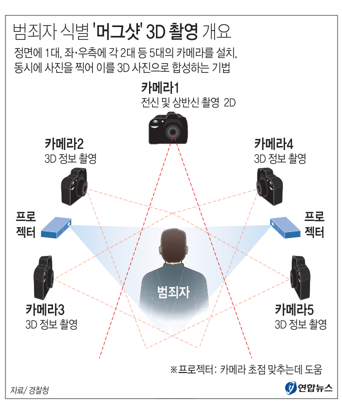
경찰, 카메라 5대 동시 촬영 합성 기법 활용

경찰이 범죄 피의자의 얼굴 사진(머그샷)을 찍을 때 기존의 평면 대신 3D로 촬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주요 범죄 피의자의 신체 특징, 범죄 수법 등을 기록하는 '수법원지'에 들어가는 얼굴 사진을 3D로 촬영해 데이터로 확보하는 시범 사업을 올해 안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 현장 CCTV에 포착된 피의자의 얼굴 등은 비스듬하게 찍힌 경우가 많아 경찰이 기존 구속 피의자를 대상으로 찍어놓은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과 대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찰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피의자의 정면에 1대, 좌·우측에 각 2대 등 5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동시에 사진을 찍어 이를 3D 사진으로 합성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경찰은 연말까지 이 시스템을 구속 피의자가 많은 수도권 소재 경찰서 10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세계적 연출가 아힘 프라이어 성신여대서 특강

독일 출신의 세계적 오페라·연극 연출가인 아힘 프라이어(80)가 27일 성신여대에서 '아힘 프라이어와 독일의 예술세계'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아힘 프라이어는 특강에서 브레히트와의 만남과 1900년대 독일예술, 1950~2000년대 독일 예술의 변화, 통일 전후의 독일 예술 등에 대해 설명했다.



20세기 독일의 시인·극작가인 그는 서사극 이론의 창시자로 유명한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수제자다.

진화하는 '외로운 늑대'

뉴욕 손도끼 테러 등 IS 동영상 영향 받은 듯… 새 위협

이슬람 무장 단체의 영향을 받은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가 국제사회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뉴욕에서 발생한 손도끼 테러와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총격 사건을 예로 들면서 외로운 늑대가 지구촌을 테러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의 손도끼 테러는 지난 23일 제일 톰슨이 경찰 4명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사건을 조사 중인 뉴욕 경찰국은 "톰슨이 인터넷을 통해 이슬람국가(IS)가 만든 참수 비디오를 봤으며 오타와 총격 사건 관련 기사도 읽었다"고 밝혔다. IS의 동영상이 범행의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총격 사건은 22일 발생했다. 마이클 제하프-비보는 국회의사당에 난입, 30여 발을 무차별 사격하다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왕립기마경찰대의 밥 폴슨 국장은 "제하프-비보가 IS의 사상에 이끌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동하는 외로운 늑대는 정확한 행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뉴욕시는 9·11테러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테러 방지 조직을 갖췄다. 하지만 '손도끼 테러리스트'는 감시망에 없었다.

국토안보부 대테러 담당관을 지낸 존 코헨은 이와 관련, "뉴욕과 오타와에서 발생한 테러는 극단주의자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반테러 조직은 이러한 테러를 막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에볼라 대책회의하는 아베 아베 신조(왼쪽 둘째) 일본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에볼라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각료회의 도중 피곤한 듯 눈을 만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철저한 검역과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2차 감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AFP 연합뉴스

7000만원 그림 알고보니 170억원

옛 주인, 경매사 상대 소송… 수집가 "카라바조 진품"

7000만원에 판 그림이 170억원 가치의 작품으로 판정나 화제다. 이를 알아챈 옛 주인이 경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랜슬롯 드와이츠가 2006년 경매사 소더비를 통해 4만2000 파운드(약 7100만원)를 받고 그림 한 점을 내다 팔았는데 최근 이 그림이 카라바조 시대 작품으로 드러났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와이츠의 집안에서 1962년 140 파운드에 사들인 이 그림은 16세기 이탈리아 화가 카라바조의 작품 '카드사기꾼'과 비슷하다. 그림을 사들인 저명 예술사가이자 수집가인 데니스 마혼 경은 이 그림이 카라바조의 진품이라면서 1000만 파운드(약 17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드와이츠는 소더비가 제대로 감정을 하지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소더비는 카라바조의 작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그림은 170억원의 보험에 가입돼 런던 성요한미술관에 걸려 있다. /이국명기자 kmlee@

"아프리카 대륙 인구 3분의 1 중산층 진입"

아프리카 대륙 인구의 3분의 1이 중산층에 진입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27일(현지시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아프리카의 중산층 부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인구 11억 명의 34%인 3억7000만 명이 중산층이며, 이들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 2060년이면 아프리카 중산층 비중이 42%로 확대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4.7%였던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5.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천연자원과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증가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IMF는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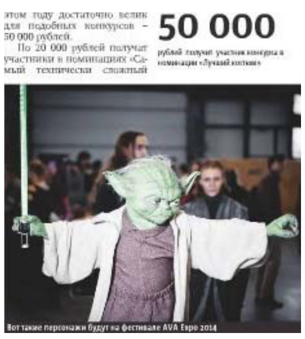
이번 보고서는 실질 구매력이 하루 2.20~20 달러인 경우를 아프리카의 중산층으로 규정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 인구의 77%가 중산층으로 분류돼 중산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조선미기자



슈퍼맨·아이언맨과 '찰칵'

metro Russia

SF 판타지 코스프레



최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중문화 박람회 에이브이에이 엑스포 2014(AVA Expo 2014)가 열렸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에이브이에이 엑스포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대중문화 페스티벌로 세계 각국의 영화·만화·드라마 산업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번 엑스포 기간에는 러시아 최대 규모의 공상과학(SF) 판타지 코스프레 대회도 열려 SF 마니아들의 관심이 높다. 자신이 좋아하는 SF 영화와 만화, 게임 속 주인공의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하는 코스프레 대회의 참가자 수는 매년 늘고 있다. 대회 우승자에게 수여되는 상금도 타 대회에 비해 많은 편이라 참가자들의 경쟁열기가 뜨겁다.

엑스포 조직위 관계자 니키타 스투디로프는 "엑스포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독립국가연합(CIS)의 대중문화 산업도 살펴볼 수 있다"며 "코스프레 대회를 통해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참가자들에게는 개성과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엑스포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대회 우승자에게는 5만 루블(약 126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고 했다. 이어 "전시장에는 슈퍼맨·스타워즈·닥터 후·트랜스포머·아이언맨 등 인기영화의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며 "방문객은 영화 속에서 금방 나온 듯 한 슈퍼 히어로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고리 카라쇼프 기자·정리=조선미기자

'12각 돌' 안녕? '13각 돌' 등장

metro Peru



페루 여행자라면 반드시 찾는 도시 '쿠스코'. 고대 유적 마추픽추로 향하는 관문이면서 '12각 돌'로도 유명한 곳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12개의 모서리에는 고대 잉카인의 수준 높은 기술력이 담겨있다. 이 '12각 돌'의 인기가 시들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다른 지역에서 '13각 돌'이 발굴됐기 때문.

13각 돌은 우안카벨리카 지역의 인카와시에서 발굴됐다. 페루 문화부 주도로 진행되는 유적 발굴 현장에서다. 인카와시는 고대 잉카문명이 600년동안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13각 돌은 한 수로와 연결되는 분수 시설에서 발견됐다. 13개의 각도는 종이 한 틈 들어가지 않는 정교함으로 다른 돌과 정확히 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루이스 하이메 페루 문화부 차관은 "이번 발견은 페루 문화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면서 "세계 문화 유산으로 신청한 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신나는 회사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상화기획 ㉕

디자이너가 로봇 조정 OK 삼성 갤럭시 공개행사 도맡아 가족적 분위기 매출도 쑥쑥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글로벌 뉴미디어 콘텐츠 에이전시 상화기획 사옥을 방문하면 크게 두 번 놀라게 된다. 입구에서 손님을 반기는 멋진 영상에 먼저 입이 딱 벌어지고 직원들간에 '형' '동생' 등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는 가족적인 모습에서 귀와 눈을 의심하게 된다.

도대체 상화기획이 어떤 회사이길래 이런 놀라움이 가득한 것일까.

상화기획의 사업분야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삼성전자, 두바이 텔레콤 등 글로벌 기업의 신제품 공개행사에 들어가는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한다. 최근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중국 베이징 등에서 열린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 공개행사에서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화려한 영상도 상화기획 작품이다. '갤럭시S1'부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갤럭시 시리즈 관련 공개행사를 도맡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HP·GM·로레알 등도 상화기획의 주요 고객이다.

홀로그램, 스테레오 3D영상 등으로 관람객에게 놀라움을 주는 첨단 박물관 전시도 상화기획의 주력 사업 분야다. 얼마 전 방한 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놀라움을 표시했던 삼성전자의 '이노베이션 뮤지엄'도 상화기획의 솜씨다.

이은규 상화기획 그룹장은 "하늘에 뜬 구름에 광고 영상을 쏘고 디스플레이가 춤을 추는 등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을 현실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것도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마지막에 상화기획을 찾았다가 결과물을 보고 놀라는 고객사가 많다"고 말했다.



사옥내 휴게실에서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기자@son

이 덕분에 경영성과도 눈부시게 좋아지고 있다. 전체 인원이 현재 50여명에 불과하지만 매출은 2012년 62억원에서 지난해 116억원으로 수직상승했다.



상화기획의 자랑인 움직이는 디스플레이.

◆평사원도 프로젝트 리더 OK

더 부러운 것은 톡톡 튀는 기업 문화다.

우선 모든 의사 결정의 단계가 매우 짧다. '고민할 시간에 실제로 만들어 보자'는 회사 방침에 따라 팀장이 결정하면 바로 실행한다.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평사원도 바로 프로젝트 리더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상상력이 회사 경쟁력'인 만큼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이야기다.

정해진 업무 영역에 따라 일을 나누는 기존 회사와는 달리 애플 창업자인 고 스티브 잡스가 강조하던 융합형 인재 경험도 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은 디자이너가 촬영에 필요한 로봇 장비를 움직이는 놀라운 경험도 맛본다. 심지어는 경영학과 출신이 드론(무인기)을 작동하는 일도 할 수 있다.

◆11월 30일까지 신입 공채

이런 독특한 문화는 복지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연간 240만원의 복지비와 함께 1년에 1~2차례 50만원 상당의 의류구입비를 지원한다. 해외 출장이 잦은 업무의 특성상 깔끔한 복장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또 연차 외 프로젝트 종료 후 2~3일 휴가를 제공하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감사 선물도 보내준다. 신입연봉도 업계 상위권인 3000만원 대다.

이 덕분인지 이직률은 업계 평균 절반보다도 낮은 5% 미만이다.

상화기획은 상상을 현실로 함께 만들 신입사원을 1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영상디자인, 3D디자인, 웹마스터, 홍보·마케팅, 기획, 프로듀싱 등 전 분야 진행하며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기 졸업자 대상으로 최대 2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포트폴리오·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을 e메일(sangwha@sangwha.com)로 제출하면 된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이런 인재를 원한다

"가능성만 보인다면 없던 자리도 제공"

"고졸 출신으로 록밴드에서 일하다 스스로 컴퓨터 그래픽을 공부해 입사한 직원도 있습니다. 당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2년 안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은규(사진) 그룹장은 자신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열정을 가진 인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다.

▶▶2007년 재미난 것을 해보자는 모임으로 시작했다가 회사로 발전한 덕분인지 아직도 가족 같은 분위기다. 고된 작업이 많은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중이다. 얼마 전에는 대표가 모든 직원들에게 홍삼을 선물하기도 했다.

▶해외 출장이 많다고 하던데.

▶▶현재도 전체 직원의 절반가량이 남아공, 노르웨이, 콜롬비아, 쿠웨이트 등에 나가있다. 아마존에서 밀림을 찍거나 노르웨이에서 항공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다. 신입사원도 1년에 최소 2번 이상은 해외출장을 떠나게 된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상여금 휴가 등을 따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다.

▶합격 노하우가 있다면.

▶▶전공, 학력, 공인어학점수 등 스펙은 전혀 보지 않는다. 그동안 쌓은 포트폴리오를 자신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모집요강에 없더라도 뉴미디어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언제든 취업 인터뷰를 요청해도 된다.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판단이 들면 없는 자리도 만들어준다.

/이국명기자

외국어1위 영단기의 인재양성서비스 '취업단기'가 함께하는 생생한 취업Q&A

면접복장은 감점만 받지 않으면 OK

Q 면접복장에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자유 복장 경우 정장을 입어도 되는지 고민입니다.

A 우선 면접 복장으로 플러스 점수를 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면접 복장은 감점만 받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감점 당할 우려가 큰 면접 복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렬한 색상의 복장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고민 없이 쥐색·갈색·검은색 등 어두운 계열의 단정한 정장을 입는 게 좋습니다. 구두는 정장과 비슷하게 어두운 계열로, 면도는 깔끔하게 하고 머리는 대학교 졸업앨범 찍을 때와 같이 단정하면 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블라우스와 치마 조합이 정석입니다. 블라우스는 하얀색이 적당합니다. 원피스는 기본적인 블랙계열로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한 여성 구직자가 서클렌즈를 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의 면접관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서클렌즈를 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래 눈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구두의 경우 보통 힐이면 괜찮지만 앞굽이 있는 구두나 보기에도 낯선 느낌의 구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낯설어 보이고 튀는 느낌은 면접에서 마이너스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을 어렵게 생각하는 지원자도 많습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은 청바지가 아니라 면바지에 남방이나 셔츠를 입는 복장을 의미합니다. 반바지는 당연히 제외되며 신발은 운동화가 아닌 캐주얼 구두 정도를 신으면 됩니다.

복장은 자유라고 했는데 혼자 정장을 입고 가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면접에서 왜 정장입고 왔느냐는 물음에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 때 "복장으로 튀려고 했다"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면접 복장은 튀지 않으면서 평범하고 깔끔한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복장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다면 큰 고민 없이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단기(www.engdangi.com/job) 제공 ·정리=이국명기자

"빅데이터가 취업문 연다"

잡코리아, 30일 중앙대서 'JOB 콘서트'



빅데이터 전문가 지망생을 위한 취업 콘서트가 열린다.

취업포털잡코리아는 자사가 운영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는 '2014 빅데이터 JOB 콘서트'를 30일 낮 12시30분 중앙대학교 아트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빅데이터 잡콘서트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대학생들에게 업계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연뿐 아니라 취업 박람회와 취업 컨설팅도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인기 걸그룹 레인보우의 축하 공연도 열린다.

강연 연사로는 김범석 쿠팡 대표, 이종석 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장, 서현주 SK플래닛 M&C 팀장, 고영혁 고넥터 대표가 나온다. 이들은 청년 창업의 중요성, 빅데이터 직무 소개 및 취업 전략, 빅데이터 전문가의 길을 안내할 예정이다.

취업 박람회에는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참여해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취업컨설팅관에서는 이력서와 면접 클리닉, 무료 사진 촬영 행사를 벌인다.

전국 대학 데이터 관련 학과 재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취업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접수는 데이터 전문가 지식포털에서 가능하다.

/장윤희기자 unique@

이통3사 '아이폰6' 가입자 유치전

31일 대대적 론칭 행사… 프리스비, '언락폰' 판매 개시

이동통신 3사가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출시를 맞아 대대적인 론칭 행사에 나선다.

지난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시장을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를 앞세워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31일 오전 8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총 1000명 규모의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를 개통하는 '누워서6받기' 행사를 진행한다.

SK텔레콤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전 고객에게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 '제레미 스캇'이 디자인한 특별한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 전용 케이스를 제공한다.

또 선착순 500명 중 추첨을 통해 디지털 카메라·캡슐커피머신·스마트빔·스마트스피커·빈백소파 등 177명에게 경품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개통 대기 고객이 앉을 수 있는 1인 소파와 음료·간식을 마련하고 영화·음악·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휴게존을 운영할 계획이다.

행사장 입장은 행사 당일 새벽 5시30분부터 가능하며, 개통은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KT도 같은 날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아이폰6 론칭 페스티벌'을 연다. 이날 행사 참석 대상은 지난 24일 1차 예약고객 중 200명 추첨자다. 당첨자는 30일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행사 참석 고객 전원에게는 아이폰 전용 충전·싱크독(dock), 라이트닝 케이블, 보호필름 등을 준다. 참석자 중 추첨을 통해 6명에게는 맥북에어, 닥터드레 이어폰 등을 선물한다.

LG유플러스 역시 같은 날 플래그십 매장인 서울 서초 직영점과 코엑스 직영점, 대구 통신골목 직영점에서 론칭 행사를 연다.

특히 행사 당일 서초 직영점에는 인기 걸그룹 '태티서'의 사인회와 기념사진 촬영도 열린다. 1호 가입자에겐 20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선착순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47인치 TV, 아이폰 액세서리 할인 쿠폰 등을 증정한다. 이 밖에 가입 순서에 따라 미니빔, 미니 스피커 등을 추가 증정한다.

서울 코엑스 직영점과 대구 동성로 통신골목 직영점에서도 각각 선착순 가입 고객 300명에게 보스 블루투스 스피커와 소니 블루투스 스피커·보조 배터리, 아이폰 액세서리 할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한편 국내 최대 애플 전문 판매점인 프리스비에서도 이날 오전 8시 서울 명동 매장에서 아이폰6와 6플러스 '언락폰' 판매를 개시한다.

사용하던 노트북이나 스마트 기기를 반납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보상판매 서비스'도 실시한다. 특히 1인당 보상 개수가 한정되지 않아 휴면기기를 여러개 보유한 고객은 더 유리하다. 정확한 보상 판매 가격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로 BC·롯데카드 사용자에겐 10개월 무이자 판매를 한다. 프리스비 이벤트 카드 3만원권도 받을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단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시장을 이번 신제품 출시로 다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현대차 아반떼, 글로벌 판매 1천만대 돌파 현대차는 지난 27일까지 전 세계에서 팔린 아반떼 모델이 1000만5032대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차는 아반떼의 글로벌 1000만대 판매를 기념하기 위해 다음달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1~5세대 아반떼(엘란트라 포함) 보유 고객을 상대로 '아반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현대차 제공

미국서 두번째 개발자 콘퍼런스

삼성전자, 미래 IT 트렌드 '스마트헬스' 핵심

삼성전자가 현재와 미래 IT분야 트렌드를 이끌어 가기위한 개발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11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콘센터에서 개최하는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주요 일정을 28일 공개했다.

지난해 스마트 생태계 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미래 IT업계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헬스와 스마트 홈 등이다. 두 번째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스마트 헬스와 스마트홈, 웨어러블, 가상현실 등 14개 주제에 대해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선다.

12일 기조 강연에서는 홍원표 삼성전자 미디어솔루션센터장 사장이 스마트 헬스와 스마트홈, 웨어러블 등을 아우르는 미래상을 발표한다. 특히 미국 대형 의료기관인 마요 클리닉과 카이저 관계자가 무대에 함께 올라 스마트 헬스에 대한 의료산업계의 시각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손영권 삼성전자 SSIC 사장이 스마트 헬스 분야의 최신 기술과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발표한다. 삼성전자가 8월 인수한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발 회사 스마트싱스(SmartThings)의 알렉스 호킨슨 CEO가 스마트홈과 사물인터넷 분야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양성운기자 ysw@

대기업 워킹맘 보육 돕는다

복합시설서 6천명 돌봐

경제계가 시간제 워킹맘들의 보육을 돕는다. 보육복합시설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을 전국 77곳에 설립해 6000명의 어린이를 보살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13개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인 '2014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건립 MOU 체결식'을 개최했다.

특히 선정 지역 중 부산 연제구와 경북 울진군, 경기도 수원시 등 3개 지역에 기존 전일제 어린이집과 시간제 보육시설이 함께 있는 보육복합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는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

건립된 지 20~3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어린이집이 리모델링을 신청했으나 현장 실사 후 아예 신축해주기로 하는 등 안전상의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을 우선 건립 지역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 교육'에 안전 관련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올해 실시했던 어린이집 안전 교육 및 체험훈련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날 13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함으로써 전국에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총 77개소로 늘어나 6000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번 2014년 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위해서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13개 그룹이 뜻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고 전국 13개 지자체가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됐다.

/박성훈기자 zen@

market index <28일>

지표	지수	등락
코스피	1925.68	(–6.29)
코스닥	562.29	(+2.37)
금리(국고채 3년)	2.22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49.30	(–3.20)

뉴스&뉴스



"내 일자리는 어디에?" 28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많은 구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수원시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씨앤앰, 대학입시 특강

● 케이블방송 씨앤앰이 28일 강남 대치2 문화센터에서 대학입시 학생, 학부모를 위한 대학입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2012년 수학능력시험 7개 전 과목에서 만점으로 서울대 전체 수석을 차지한 김승덕 씨가 '자기주도학습으로 대학의 문을 열자'를 주제로 강의한다.

씨앤앰은 이번 특강을 다음달 18일 오후 9시30분 씨앤앰 ch1을 통해 서울과 경기지역 시청자들에게 녹화 방송할 예정이다. /이재영기자

프리챌 창업진 '에어라이브'

● 원조 채팅 커뮤니티 '프리챌' 창업진이 채팅과 화상대화를 함께 즐기는 '페이스 채팅'을 선보였다.

에어라이브코리아는 전세계 어디서나 채팅과 동시에 화상대화를 할 수 있는 페이스 채팅 기능 탑재 모바일 무료 앱 '에어라이브'를 서비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회사는 국내 원조 채팅 커뮤니티 프리챌을 창업한 전제완 대표이사의 새로운 소셜 서비스다. 에어라이브는 글이나 사진, 영상 콘텐츠를 모바일과 웹을 통해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소셜 기반의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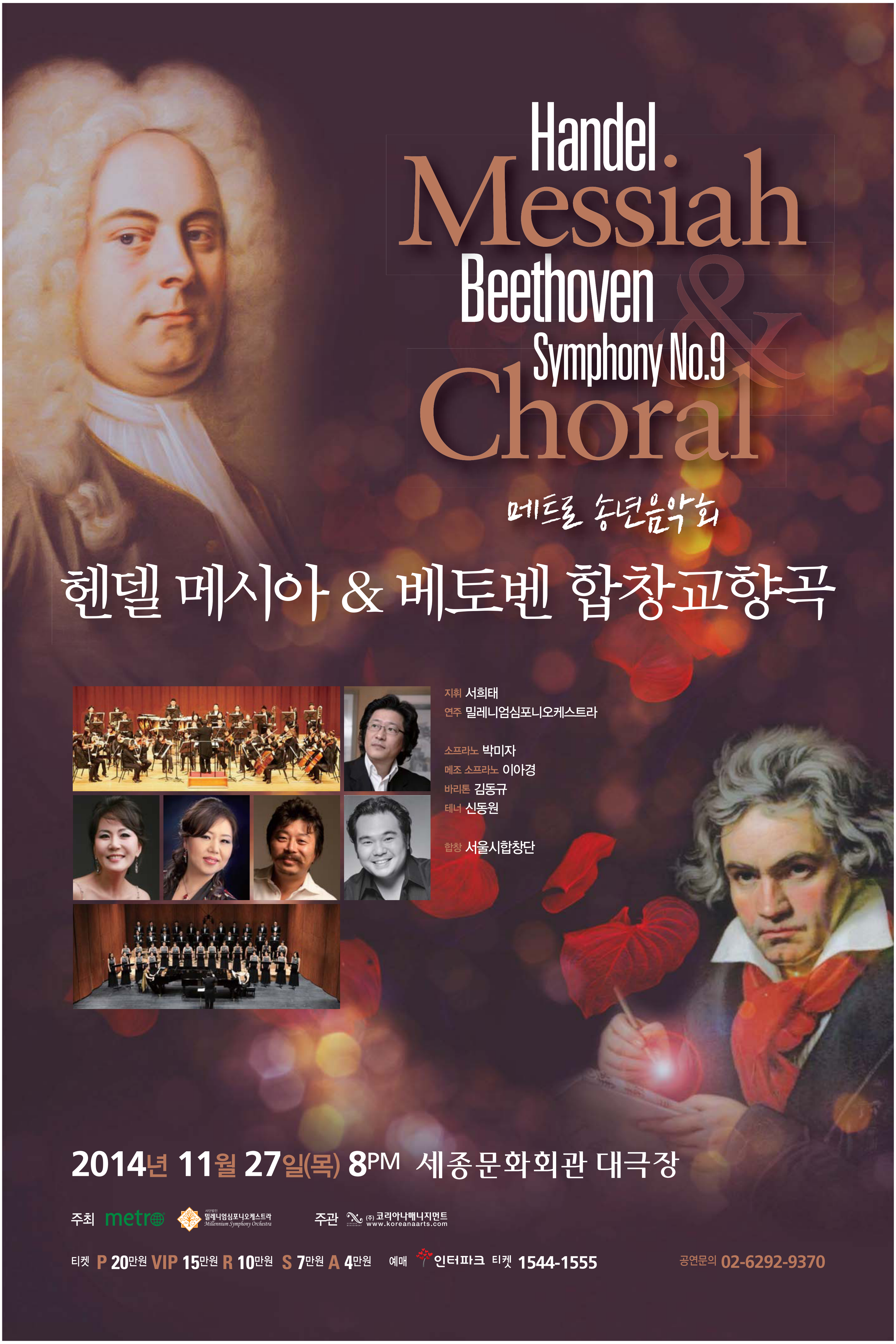
/장윤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민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Handel
Messiah
&
Beethoven
Symphony No.9
Choral
메트로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 & 베토벤 합창교향곡
지휘 서희태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미자
메조 소프라노 이아경
바리톤 김동규
테너 신동원
합창 서울시합창단
2014년 11월 27일(목) 8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metro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주관 (주) 코리아나매니지먼트 www.koreanaarts.com
티켓 P 20만원 VIP 15만원 R 10만원 S 7만원 A 4만원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적자 이유 휴대폰 보험료 5배 인상

보험사들이 매년 적자를 이유로 휴대폰 보험금을 3년 새 5배가량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거둬들인 전체 보험료 수입의 절반인 180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기기 보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는 휴대전화 보험 판매로 174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기간 보험사들이 보험료로 거둬들인 수입은 총 3834억원으로 이 중 2089억원을 보상했다.

보험사는 2008년부터 판매된 휴대전화 보험에서 2012년까지 적자를 봤다. 2012년에는 136억원의 손해를 봤고, 2011년에는 약 600억원의 적자를 봤다.

반면 보험료는 최근 3년간 5배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보험에 가입한 휴대전화 1대당 평균 보험료는 6만548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2012년은 2011년(2만4500원) 대비 134%, 2010년 보험료는 1만454원에 불과했다.

한편 휴대전화 보험은 보험업법에 의한 '자율상품'으로 분류돼 금융당국에 신고할 필요 없이 사실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하고 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외국계銀, 악재 털고 일어설까?

새 수장 맞은 SC·씨티… 수익성 강화·조직안정 주력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수장이 전격 교체됨에 따라 이들 은행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전날 행장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주주총회를 열고 박진회 수석부행장(기업금융부문 그룹장)을 차기 행장으로 최종 낙점했다.

한국SC은행 역시 아제이 칸왈 행장 후임을 모색하고 있다. 후임 행장으로는 박종복 리테일금융 총괄본부 부행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SC은행장으로 한국인이 오는 것은 제일은행 인수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며, 씨티은행 역시 14년만에 새로운 수장을 맞게됐다.

금융권에서는 이들이 지속적인 실적악화와 구조조정 등의 악재에 맞설 새로운 구원투수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저금리와 저성장의 기로에서 수익성 강화와 조직 안정화라는 숙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씨티금융의 경우 지난 2분기 81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핵심 수익 지표 가운데 하나인 총자산순이익률(ROA)도 지난해 말 기준 0.13%로 시중은행 평균(0.34%)에 못 미쳤다.

당시 씨티은행 측은 "56개 지점 폐쇄와 650여명을 희망퇴직시킨 데 따른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 20여개의 점포를 더 폐쇄할 계획이다. 이는 소매금융 부문의 실적 부진을 반영한 조치로, 씨티은행을 새롭게 이끌 박 신임 행장은 구조조정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최근 미국 씨티그룹은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을 매각해 소매금융과 기업금융에만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SC은행의 후임 행장이 확정되고 나면 한국SC지주와 한국SC은행을 합병하는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SC은행은 "한국 금융업계 최대의 외국인 투자자로서 앞으로도 소매금융과 기업금융 등 한국의 핵심사업 부문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SC은행과 씨티은행이 행장을 교체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 철수설부터 구조조정문제, 수익악화 문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쉽게 바뀌기 어렵다"며 "여타 국내 시중은행들 또한 자신들의 먹거리를 쉽게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다이어트·금연하면서 기부도 한다" KB국민카드는 28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 프로젝트 성공 격려식을 갖고 이번 활동을 통해 조성한 기부금 1450여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김덕수 사장(좌측 다섯번째)과 임직원들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중로 본부장(좌측 여섯번째)과 전달식을 가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카드 제공

美 FOMC 회의 개막… 금리인상 주목

3차 양적완화 종료 예상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시작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150억 달러 남은 3차 양적완화 프로그램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은 양적완화 조치의 종료가 시장에 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 자산을 당장 처분하지 않고, 최소 몇 년간 보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점을 시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기준금리 인상 포워드가이던스(선제적 안내)를 바꿀 지 등이다.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금리 인상을 조기 개시함으로써 변칙적 통화정책에서 벗어나는 출구전략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경제·고용 상황이 취약해 초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는 등의 부양 정책이 당분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시장에서는 대체로 전자보다는 후자의 비둘기파적 견해가 이번 회의 결과에도 반영될 것으로 판단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인사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니엘 타룰로 FRB 이사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금융협회(IIF)의 콘퍼런스에서 "전세계의 경제 성장이 우려스럽다"면서 "상방 위험보다는 하방 위험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정책 결정에 있어 생각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FOMC 회의 결과는 29일 오후 2시(한국시간 30일 오전 3시) 성명 형태로 발표된다.

/김민지기자 minji@

선장 바뀐 서울보증 경영혁신 어떻게…

민간 출신 김옥찬 사장…방만 경영 등 산적한 과제 해결 주목

SGI서울보증은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김옥찬(58·**사진**) 전 KB국민은행 부행장이 선임됐다. 사실상 첫 민간출신인 김 신임 사장은 전임 '관피아' 사장과 달리 방만경영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경영에 새 바람을 몰고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보증은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전날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가 내정한 김옥찬 사장 선임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 사장의 임기는 29일부터 3년이다.

김 사장은 2004년 퇴임한 삼성화재 본부장 출신인 박해춘 전 사장 이후 10년 만에 서울보증의 민간 출신 사장이다.

김 사장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회사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과 비전 제시를 통해 최고경영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서울대사대부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국민은행에 입행, 경영관리그룹 부행장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민병덕 전 국민은행장이 물러난 뒤 한 달간 국민은행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첫 민간 출신 사장이 선임돼 관피아로 방만경영이 만연했던 서울보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금융권에서 30년간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사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낙하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김 사장은 이달 초 KB금융 회장 유력 후보에 올랐지만 자진 사퇴했다. 30년간 KB에 몸담으면서 회사의 내분을 잠재울 수 있는 후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바로 사퇴하면서 서울보증 사장에 내정됐다는 설에 휩싸였다. 여기에 대추위의 비공개 후보자 선임 절차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김 사장이 27일 밤 최종 내정자로 선정되자마자 노조 측에 의혹 해소를 위한 질의서를 직접 전달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당초 노조는 28일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봉쇄하려고 했지만 이 같은 김 사장의 대처에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과도한 복지와 방만경영도 쉽지 않은 문제다. 서울보증은 지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파산 직전에 놓였다가 11조9161억원의 공적자금 지원으로 회생된 회사다.

이번 국감 자료에서 서울보증은 지난해 42억46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직원 수를 1258명으로 볼 때 1인당 337만5000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현재 상환해야 할 공적자금이 7조7804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30년간 은행업계에 있었지만 국민은행에서 방카슈랑스 부장으로 지낸 것 외에는 보험 분야 경력이 없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 사장이 세월호 사건 등 '관피아' 논란이 정점인 현 상황에서 선임됐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를 떠안고 출발한 것"이라며 "노조 반발 등 내외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에 몰두하다 보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외환은행 노동조합 제공

조기통합 협상 물꼬 트이나?

외환은 징계 대폭 축소

외환은행이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참석과 관련한 직원 징계 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기통합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38명을 최종 징계 대상으로 확정하고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결재를 받았다.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달 18일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임시조합원 총회 참석 관련 직원 898명을 징계 대상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95.8%인 860명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 대상인 38명도 21명은 견책 이하 경징계이며 중징계는 정직 3명, 감봉 14명 등 17명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사측이 크게 양보한 만큼 노조도 이에 호응하는 행동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측이 징계 규모와 수위를 대폭 낮춤에 따라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 협상을 거부해 온 외환은행 노동조합도 전향적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건 없이 사측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근용 노조위원장은 "사측의 징계가 대폭 감경됐다"며 "노조는 통 큰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에서 조기통합을 포함해 모든 것을 논의해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진정성 있는대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2.17 합의서에 기반한 논의"라며 "합의 내용을 뛰어넘는 조건과 요구도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대형주 시총순위 지각변동

SKT 10위, 아모레퍼시픽·SK C&C 20위권

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화학·조선주가 지고 경기민감 내수주가 뜨는 대형주의 지각변동이 나타났다. SK텔레콤(SKT)이 시가총액 10위권 진입에 성공했고 아모레퍼시픽과 SK C&C, KT&G, 삼성물산은 20위권에 들어섰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SKT의 순위는 이날 현재 시총 10위로 지난해 말 13위에서 3계단 올라서며 상위권에 들어섰다.

아모레퍼시픽(13위)과 SK C&C(15위), KT&G(16위), 삼성물산(20위)은 올 들어 새로 20위권에 등극했다.

반면 삼성생명이 11위로 기존 10위 자리를 내줬고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 하나금융지주, 롯데쇼핑, LG전자는 대거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업황 상황에 따라 대형주별 희비가 엇갈렸다.

화학·조선 업종이 침체를 거듭하면서 LG화학이 지난해 말 11위에서 17위로 내려왔고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12위, 15위에서 20위권 밖으로 탈락했다.

반면 경기민감 내수주는 업황 호조에 껑충 뛰어올랐다.

아모레퍼시픽의 상승이 눈에 띈다. 이 기업의 주가가 올 들어 2.5배 급등하면서 순위권 밖에서 13위에 단숨에 자리했다.

김영일 대신증권 연구원은 "화학·조선 업종의 경우 2010년까지 상당히 좋았다가 이후 4~5년간 안 좋아지는 싸이클로 접어들면서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다"며 "반대로 IT나 내수 쪽 업황은 호조를 보이며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관련해선 업종별 주가 싸이클(3~5년)을 잘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동부화재, 재무건전성 7년 연속 'A'

동부화재는 세계 최대 보험회사 신용평가기관인 미국 에이엠베스트(A.M.Best)로부터 7년 연속 재무건전성 등급(FSR) 'A(Excellent)'를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채무이행 등급(ICR)은 6년 만에 'a'에서 'a+'로 상향됐다.

에이엠베스트는 동부화재 등급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높은 비용효율성과 자산운용 경쟁우위를 통한 견고한 재무성과 창출을 꼽았다.

이어 철저한 내부리스크 관리와 수익성에 집중한 성장전략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채무이행 등급 'a+'의 경우 최고 등급인 'Superior A++'로 평가 받기 위한 전 단계로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며 "수익성과 성장성의 우수함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도를 강화할 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하이투자증권, 지수형 ELS 2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29일부터 31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을 총 107억5000만원 규모로 공모한다. 이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다. /하이투자증권 제공

메르세데스 벤츠, 젊은 감성과 호흡 '질주'

메르세데스 벤츠가 20~30대 젊은 고객층을 겨냥해 내놓은 콤팩트 카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어 화제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2012년에 B클래스, 2013년에 뉴 A클래스를 선보인 데 이어 2014년 1월 뉴 CLA클래스를 출시하면서 젊은 고객층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콤팩트 SUV인 뉴 GLA클래스의 출시로 콤팩트 카 라인업이 한층 더 강력해졌다.

이러한 새 모델 투입에 힘입어 메르세데스 벤츠의 콤팩트 카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9월까지 뉴 A클래스, B클래스, 뉴 CLA클래스, 뉴 GLA클래스가 총 2078대 판매됐으며 이는 2013년(1018대) 대비 104% 성장한 수치다.

뉴 A클래스는 작년 8월 국내 출시 이후 총 1100대 이상(1109대) 판매되어 메르세데스 벤츠 콤팩트 카 라인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올해 초 출시된 뉴 CLA클래스는 9월까지 929대 판매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9월 말 출시된 뉴 GLA클래스도 출시 한 달 만에 245대 판매를 기록했다.



콤팩트 카 잇따라 출시… 지난해 대비 104% 성장

◆새로운 프리미엄 콤팩트 카, 뉴 A클래스

2013년 8월에 출시된 뉴 A클래스는 스포티하고 감성적인 디자인과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이 결합된 프리미엄 콤팩트 카다. 트렌디한 디자인과 민첩한 핸들링, 효율적이고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를 선호하는 운전자에게 특히 어울린다.

최근 새롭게 출시된 뉴 A 180 CDI는 신형 1.5ℓ 엔진과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의 완벽한 조화로 편안한 승차감과 뛰어난 스포티함, 경제성을 제공한다. 또, 에코 스타트/스톱 기능이 적용되어 복합 연비 19.3km/ℓ(1등급), 고속도로에서 22.7km/ℓ를 보여준다. 주의 어시스트(ATTENTION ASSIST)와 어댑티브 브레이크 라이트(Adaptive brake lights),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lectric parking brake), 윈도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등 총 7개의 에어백이 기본 장착됐다.

국내에는 젊은 층의 성향에 맞춰 뉴 A 180 CDI 스타일, 뉴 A 180 CDI 나이트 총 2개의 버전으로 제공된다. 가격은 뉴 A 180 CDI 스타일 모델 3790만원, 뉴 A 180 CDI 나이트 모델 4100만원이다.

◆프리미엄 콤팩트 4도어 쿠페, 뉴 CLA클래스

올해 1월 출시된 뉴 CLA클래스 또한 매력적인 디자인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갖춘 프리미엄 콤팩트 4도어 쿠페다. 매력적인 스포츠카의 비율과 4도어 쿠페의 다이내믹한 디자인 랭귀지가 조화를 이뤘으며, 트렌드를 리드하고 스타일리시한 젊은 고객을 위한 차량이다.

뉴 CLA클래스에는 상, 하향등에 모두 제논 라이트를 장착했고, 주의 어시스트와 어댑티브 브레이크, 7개의 에어백이 기본 장착되어 안정성을 높였다. 유로 NCAP 충돌 테스트에서는 만점인 별 5개를 획득했다.

뉴 CLA 200 CDI는 최고 출력 136마력, 최대토크 30.6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최고속도 220km/h, 정지 상태에서 100km/h를 9.4초에 주파한다. 복합 연비는 16.6km/ℓ(1등급), 도심 연비 14.8km/ℓ, 고속도로 연비 19.7km/ℓ다.

뉴 CLA 250 4MATIC에는 4기통 2.0ℓ 직분사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출력 211마력, 최대토크 35.7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6.6초에 주파하며 복합 연비는 11.3km/ℓ다. 뉴 CLA 45 AMG 4MATIC은 메르세데스 AMG 최초의 4기통 2.0ℓ 엔진이 탑재됐다. 최고출력 360마력, 최대토크 45.9kg·m의 성능을 발휘하며 리터당 출력밀도가 181마력에 이른다. 정지 상태에서 100km/h 가속시간은 4.6초에 불과하다. 뉴 CLA 45 AMG 4MATIC의 연비는 복합 연비 10.6km/ℓ(4등급), 도심 연비 9.3km/ℓ, 고속도로 연비 12.9km/ℓ이며 CO_2 배출량은 km당 165g이다. 가격은 뉴 CLA 200 CDI 모델 4580만원, 뉴 CLA 250 4MATIC 모델 5320만원, 뉴 CLA 45 AMG 4MATIC 모델 6910만원이다.

한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세로수길에 마련한 'Mercedes me'를 젊은 층의 호응에 힘입어 11월 2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에 관심이 있고 새로운 콤팩트 카를 자유롭게 경험해 보고자 하는 모든 고객에게 열려 있는 공간인 Mercedes me는 지난 21~26일까지 6일 동안 총 4500여 명이 방문했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보스(BOSE), 신제품 3종 출시 글로벌 오디오 브랜드 보스(BOSE)는 28일 감각적인 컬러와 무선 기능을 채택한 '사운드링크 컬러 블루투스 스피커', '사운드링크 온이어 블루투스 헤드폰'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의 '사운드트루 인이어 이어폰' 등 신제품을 한국시장에 선보였다. /연합뉴스

세계 철강 경기 내년도 정체 지속

최대 시장 중국 불경기 예상… 수요 2% 증가 그칠 듯

내년에도 세계 철강 경기는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세계철강협회 사무국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연례총회에서 올해 글로벌 철강 시장 동향과 내년 전망에 대해 암울한 결과를 내놨다고 한국철강협회가 28일 밝혔다.

내년 글로벌 철강 수요량은 올해보다 2.0% 늘어난 15억9000만t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철강 수요량도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5억6000만t에 머물 것으로 세계철강협회는 내다봤다.

다만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시장은 자동차 등 수요 산업이 회복하면서 지난해보다 4.3% 증가한 4억t의 철강 수요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업황 전망이 좋지 않은 것은 세계 최대 철강 수요 시장인 중국의 수요 부진 때문이라고 세계철강협회 측은 분석했다. 중국 철강시장은 이미 공급 과잉현상이 심화한 데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저성장을 기록하면서 내년 중국 철강 시장 규모가 올해보다 0.8% 늘어난 7억5000만t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회복세를 보였던 미국 시장 역시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요 둔화로 내년 시장 성장률이 1.9%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인도와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국 철강 시장은 선진국보다 높은 3~7%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mjkim@

문화 마케팅으로 소비자 사로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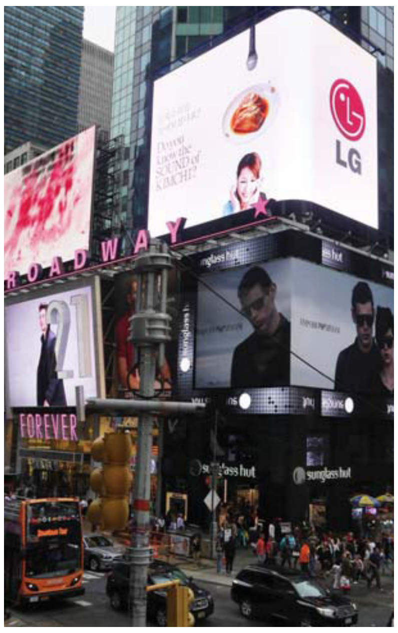
전자업계, 전시·공연·영상 등 통해 기술력 전달

전자업계가 문화 마케팅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 베토벤 홀에서 열린 톨스토이 문학상 시상식에 105인치 커브드 UHD TV를 설치, 역대 수상 장면을 UHD 화질로 제공했다. 지난 12일에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 포뮬러1 그랑프리 러시아대회에서 대통령 라운지에 105인치 커브드 UHD TV를 설치해 레이싱 서킷의 스피드를 초고화질로 전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활발한 문화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지난 여름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간송문화전'에 '커브드 UHD TV 영상존'을 마련하고 혜원 신윤복의 전신첩, 훈민정음 해례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을 UHD 콘텐츠로 만들어 크고 선명한 화질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전시 특성상 아주 가까이서 보기 힘든 작품들을 UHD 화질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LG전자는 영국에서 디자이너 애쉴리 윌리암스(Ashley Williams)와 손잡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의류 가방을 제작했다. 정장이나 드레스를 보관할 수 있는 이 가방을 통해 의류 관리의 중요성과 함께 의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LG 세탁기의 제품 경쟁력을 알렸다.



LG전자가 9월 24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김치냉장고 옥외광고를 했다. /LG전자 제공

LG디스플레이도 전시회를 통해 제품의 강점을 알리고 있다. 이 회사는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12월 7일까지 열리는 '하이브리드 하일라이츠-스위스&한국:예술-인간-과학 展'에 55인치 곡면형 OLED TV를 지원한다. 영상 작품을 통해 OLED TV의 깊이 있고 다채로운 색채와 어느 동선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야각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취업도 하기 전에 등골 휜다

구직자, 토익에만 한달 33만원 지출… 이력서 사진 비용도 10만원

취업 준비생들이 공인어학시험을 위해 한달 평균 32만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력서 사진 촬영과 면접 비용을 합치면 취업 준비 비용은 대학생 한달 생활비를 훌쩍 뛰어 넘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구직자 340명을 대상으로 '어학시험 준비'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9.7%가 '어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토익이나 토익스피킹, 오픽 등의 공인어학시험을 보는 이유 1위는 '취업'(69.5%)이었다. 영어 시험 준비의 목표가 '자기계발'이란 응답률은 11.8%, '어학연수'는 9.8% 지지를 얻어 취업용 어학시험 준비가 월등히 많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사 지원 자격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영어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어학시험 비용으로는 한달 평균 32만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생 한달 평균 생활비가 40만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비중이다. 한달 평균 어학시험 지출 비용 32만9000원 가운데 학원비와 교재 구입비가 22만7000원을 차지했으며 순수 응시료는 10만2000원이었다. 현재 토익 응시료는 4만2000원, 토익스피킹 7만7000원, 오픽 7만8100원이다.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토익의 경우 접수기간을 놓쳐 추가 접수를 하려면 응시료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응답자의 91.9%는 '공인어학시험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어학시험뿐 아니라 이력서 사진 촬영도 또다른 부담이다.

취업포털 사람인의 최근 설문 자료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만족하는 이력서 사진을 위해 1회 평균 3만원씩 총 3회를 촬영하고 있었다. 구직자들의 83.8%는 '이력서 사진이 서류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36.1%는 자신의 서류전형 탈락 이유가 이력서 사진이라고 답했다. 이력서 사진 촬영비만 10만원가량으로 면접용 사진을 위한 의상과 메이크업 비용을 합하면 수십만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LG전자, 500W 고출력 오디오 LG전자가 고출력 오디오(OM5542)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은 500W(와트)의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앰프와 스피커 일체형으로 이동·설치가 간편해 소규모 야외 행사에 적합하다. /LG전자 제공



삼성 혁신 탑재 '갤럭시 노트 엣지'

스마트폰 우측에 정보 표시 기능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엣지'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갤럭시 노트 엣지를 SK텔레콤과 KT를 통해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의 우측까지 정보를 표시해 갤럭시 노트 대화면 사용성을 극대화했다. 엣지 스크린을 통해 알림이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 동영상 감상, 네비게이션, 게임 등 다양한 작업 중에도 방해없이 대화면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에도 촬영 버튼과 메뉴 아이콘이 엣지 스크린에 표시되어, 피사체를 전체 화면으로 확인하며 보이는 그대로 촬영할 수 있다.

엣지 스크린은 최신 뉴스, 스포츠 경기 현황, 증권 정보 등 '정보 모음'과 스톱워치, 줄자 등 생활에 유용한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빠른 도구', 야간에 탁상시계와 같이 시간을 표시해주는 '야간 시계'로 쓰인다.

특히 S펜으로 작성한 글자와 이미지를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배경화면을 엣지 스크린에 설정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 미' 기능을 통해 다양한 개성 표현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갤럭시 노트 엣지'는 141.9㎜의 쿼드HD+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보다 자연스러운 필기감을 제공하는 'S펜', 셀피에 최적화되어 있는 전후면 강력한 카메라, 3GB 램, 3000mAh 배터리 등을 탑재해 최상의 스마트폰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노트 엣지'는 차콜 블랙, 프로스트 화이트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106만 7000원이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28일과 29일에 출시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노트 엣지'는 세계 최초로 측면까지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엣지 스크린을 탑재해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연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 중심의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SK이노베이션 3분기 영업익 488억

화학·석유개발 사업 효자 노릇 흑자 전환

SK이노베이션이 올해 3분기 매출액 16조 6084억원, 영업이익 488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유가 하락과 정제마진 감소로 석유사업이 부진했지만, 파라자일렌(PX)의 가격 반등에 따른 화학사업 실적회복 등 비석유사업의 선전에 힘입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분야별로 석유사업은 글로벌 석유수요 감소에도 셰일가스 개발에 따른 북미지역의 공급증가로 약세가 지속됐다. 이 때문에 환율 상승에도 정제마진이 하락해 매출액 12조 1262억원, 영업손실 2261억원으로 2분기에 이어 적자가 계속됐다.

그러나 화학사업이 매출 3조 4688억원에 영업이익 1308억원을 기록하며 효자 노릇을 했다. 이는 올레핀 시황 강세와 신규설비 가동 지연, 다운스트림 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1.2배 이상 증가했다.

석유개발사업 역시 매출 2401억원, 영업이익 1214억원을 달성했다. 미국 생산광구 인수를 마무리하며 일 평균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 6000 배럴 상승한 7만1000 배럴을 기록했고, 이에 따른 손익 반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했다.

윤활유 사업은 신규설비 증설로 인한 경쟁심화로 판매 물량이 소폭 감소하며 매출 7009억원, 영업이익 732억원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정유사업이 부진을 이어갔지만, 석유개발사업 호조와 화학사업 회복으로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앞으로 스페인 윤활기유 공장 가동, 베트남 광구 추가 생산 등에 이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을 지속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mjkim@

아파트 매매가比 전세가 66% 넘어

인천 중구 가장 낮아

전국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645만2273가구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난해 60.29%보다 6.22%포인트 늘어난 평균 66.51%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시·군·구에서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 광산구(81.02%)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 중구(45.06%)였다.

28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0월 4주차 시세 기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광주가 79.1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대구 75.76%, 충남 74.65%, 전북 74.34%, 경북 73.31%, 충북 71.71%, 울산 71.68%, 전남 71.58%, 대전 70.19% 순으로 9개 시·도에서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시가 77.42%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군포시 76.26%, 경기 의왕시 73.91%, 경기 안양시 71.9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주변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 유입이 많은 곳으로 지역 내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거나 신도시와 접해 있는 등 기반시설도 좋아 젊은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 비율이 높게 형성됐다.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71.85%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성북구는 길음뉴타운 개발로 2005~2010년 사이 입주한 새 아파트 전세가가 올라 전세가 비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뒤를 이어 중구(71.14%), 동대문구(71.11%), 서대문구(70.87%), 관악구(70.07%) 등에서 70%를 넘었다.

/김두탁기자 kimdt@

한 자녀 대신 반려동물 키우는 '왕서방'

중국 중산층 지극정성 돌봐… 머드팩 등 '개팔자 상팔자' 서비스 인기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왕서방'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돈을 쏟아붓고 있다.

최근 많은 중국 중산층이 한자녀 대신 키우는 반려동물에 엄청난 돈과 시간을 쓰고 있다고 미국 경제매체 CNN머니가 전했다.

상하이에 사는 피비 유는 고양이 4마리와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다. 매월 유기농 사료와 동물 전용 목욕 용품을 구입하는 데 600 달러(약 63만원)를 쓴다. 여름에는 개와 고양이를 피부 관리실에 데려가 시원하게 목욕을 시키고 가끔 머드팩도 시켜준다. 겨울에는 일본식 온천에 데려가고, 매년 건강검진도 빼놓지 않는다.

2014년 현재 중국 전체 가구의 7%가 개를 키우고 2%가 고양이를 키운다. 중국 내 반려동물 인구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중국의 반려동물 산업은 앞으로 5년간 43% 증가, 22억 달러(약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고급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세다. 집에서 만든 수제 간식은 물론 반려동물을 위한 한약재와 침술 치료도 있다. 강아지를 판다처럼 꾸미는 염색과 발톱 손질 등 '개팔자상팔자' 미용 서비스도 다양하다. 주인과 견공이 함께 하는 '도그 요가'도 반응이 좋다.

홍콩의 애견 센터는 반려동물의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식 마사지와 지압 서비스를 제공, 인기를 얻고 있다. 1회 15분 마사지 서비스에 20 달러다. 반려동물 보험도 등장했다. 국영 보험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공사(PICC)는 지난달 반려동물 보험을 내놨다. '멍멍 보험'의 연간 보험료는 550 달러로 비싼 편이지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유는 공해와 식품 안전, 교육 문제 등이 걱정돼 아이를 갖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동물을 기르는 것이 힘도 덜 들고 마음도 편하다고 말했다. 먹는 것과 입는 것만 잘 챙겨주면 큰 탈 없이 잘 자란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치고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주는 '네발 자녀'의 위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유는 "해외 여행을 하는 친구들에게 최신 반려동물 옷을 사오라고 종종 주문한다"면서 "한국에서 만든 것이 가장 맘에 든다"고 했다. 그는 "동물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늙어갈 것"이라며 "몇 마리 더 키울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며 웃었다.

중국 근무 외국인 26% 연봉 3억원 이상 받아

이유는 스모그?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4명 중 1명은 3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28일 중국 북경청년보 등에 따르면 홍콩상하이은행(HSBC) 그룹이 전 세계 34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인사 9288명을 대상으로 '2014년 국외거주자 조사'를 벌인 결과,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응답자의 26%가 연봉 30만 달러(약 3억1500만원)를 넘게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국에 근무하는 외국인 응답자의 85%는 자신의 경제상황에 만족도를 표시해 다른 지역 평균치(6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또 과반수의 응답자가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 온 이유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더 나은 사업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중국에 근무하는 외국인 연봉이 높은 이유가 환경 탓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살인적인 스모그 등 열악한 생활환경에 대한 본사의 수당, 보상 등이 연봉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다. /이국명기자





'푸틴 뮤직박스' 얼마? 27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에서 한 남성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을 본 떠 만든 '뮤직박스'를 손보고 있다. '푸틴 뮤직박스'는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이 크림 자치공화국과의 합병 조약에 서명하는 모습이다. 다음달 15일 경매에 부쳐질 예정으로 경매 시작 가격은 1만 8000유로(약 2400만원)로 알려졌다. /로이터 연합뉴스

공격적인 아시아 vs 보수적인 미국

기관투자자 성향도 극과 극 드러나

아시아지역 기관투자자들이 가장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피델리티자산운용이 세계 22개국 811개의 기관 투자가들을 상대로 향후 1~2년 내 사모펀드·부동산·인프라 등 비유동성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지를 물은 결과, 아시아 기관투자자 84%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미국 기관투자자 중에서는 22%만이 비전통적 투자 전략에 관심을 보였다.

아시아 지역 투자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미국은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 변동성에 대한 전망도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 기관 투자가 중 42%는 향후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7%만이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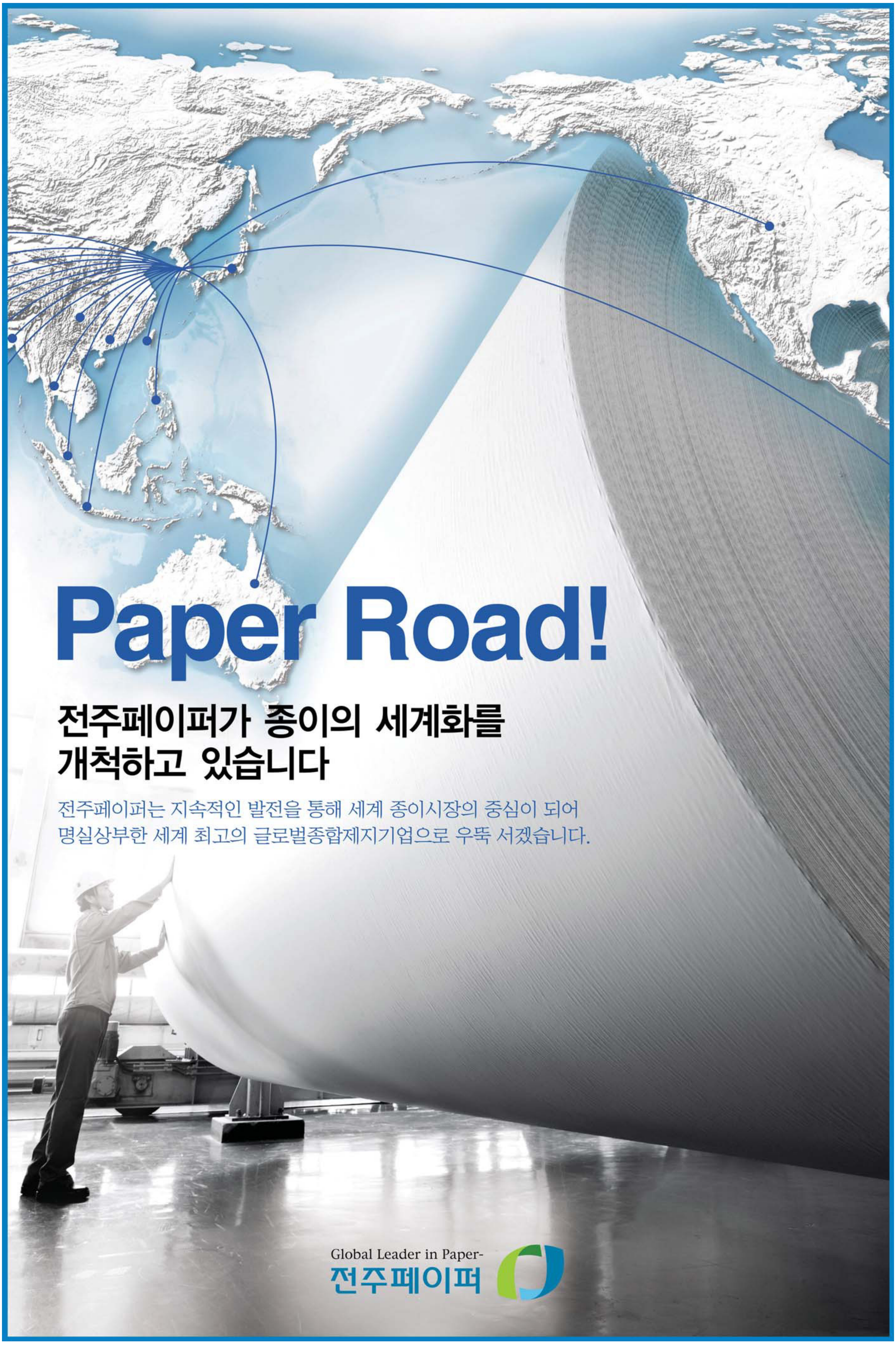
반면 91%의 아시아 기관 투자가와 79%의 유럽 기관 투자가는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낮아지고 시장 거품 형성 및 붕괴의 빈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했다.

향후 5년 안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 중 91%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2012년 65%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26%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향후 3~5년 내 가장 유망한 투자 지역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가 아시아 신흥국을 선택했다. 북미(30%), 유럽(11%), 중남미(10%)가 뒤를 이었다.

한편 투자할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22%가 '시장 변동성'을, 21%가 장기화하는 '저금리 환경'을 꼽았다. /이국명기자 km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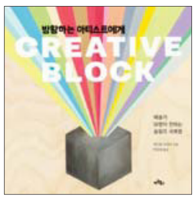

Paper Road!
전주페이퍼가 종이의 세계화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주페이퍼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 종이시장의 중심이 되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종합제지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Global Leader in Paper-
전주페이퍼

새로 나온 책

예술

방황하는 아티스트에게

대니엘 크리사/아트북스



저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 세계 아티스트 50명을 인터뷰해 아티스트들이 창작 과정에서, 혹은 창작과 일상생활이 부딪히며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들었다. 또 아티스트들이 제안하는 '창작의 벽 극복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을 따라 하며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에세이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

최준식/김영사



한국학 최고의 권위자 중 한 명인 저자는 '죽음학의 대가'라는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죽음과 의식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그리고 이 책은 이런 저자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총망라된 죽음의 지침서이자 죽음을 준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다.

경제·경영

나락 끝에서 오른 브랜드 재생 스토리

사다다 후미/디자인소호



브랜드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책은 독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업 내부의 일상을 세심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소설이라는 장르의 재미를 통해 브랜딩에 관련된 이론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1% 위대한 기업은 어떻게 일하는가

심재우/베가북스



기업가 정신이 변하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불굴의 의지와 개척정신만으로 일하던 시대가 지나고 협업과 이를 통한 집단 창의성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대가 됐다. 이에 책은 저자가 가진 협업 스킬 프로그램을 집대성했으며 집단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방법과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자기계발

너의 결혼을 디자인하라

황재복/라이스 메이커



딸을 가진 엄마로 30년이 넘는 결혼생활을 아직도 신혼처럼 잘하는 인생 선배이자 25년간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온 패션 디자이너가 들려주는 결혼 이야기다. 결혼에 대한 조언은 물론 행복을 찾아가는 가슴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노하우를 만날 수 있다.

끌리는 얼굴은 무엇이 다른가

데이비드 페렛/엘도라도



사람마다 얼굴에서 느끼는 매력은 다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얼굴이 있다. 20년 넘게 얼굴만을 연구해온 저자는 얼굴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객관화해 보편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파헤친 과학의 뒤편에 숨어 있는 얼굴 속 매력의 비밀이 지금 공개된다.

과학

팔색조의 육아 비밀

박진석·장성래/자연과 사람



8가지 색을 가졌다고 이름 붙여진 팔색조는 환경부 지정 천연기념물 204호이고 멸종 위기 2급인 희귀 새다. 책에는 그만큼 보기 어렵고 보호가 필요한 이 새의 일대기가 담겨 있다. 부모 새가 알을 낳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영화와 같은 생생한 팔색조의 인생이 펼쳐진다.

종교

땅콩 스님과 애벌레 선

보현·강명주/민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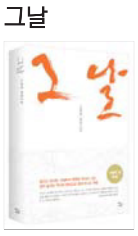


80년대 아이돌 스타였던 보현 스님의 깨달음의 향기가 가득한 수행 이야기가 진솔하게 드러난다. 애벌레가 나비가 돼 날아가듯이 세간에서 짊어지고 있던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이야기가 특별한 감동으로 전해진다.

소설

그날

소재원/마레



일제강점기, 잔혹했던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운 비극적인 시간들이다. 하지만 이 시대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기였고 그 안에서도 삶을 사랑하고 순정을 간직한 이들이 있었다. 서수철과 오순덕의 삶도 마찬가지였으며 책 속에서 그들은 그들이 약속한 순정을 지켜내며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랑과 상처, 그 관계 이야기 '기억해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소설



기억해줘

임경선/예담

단편소설집 '어떤 날 그녀들이'로 20~30대 여성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임경선이 깊고 내밀한 이야기로 돌아왔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장편소설 '기억해줘'는 사랑과 상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임경선이라는 작가의 청소년기 시절과 그간의 연애 그리고 모성의 경험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가 녹아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소설은 해인이 연인과 이별하는 장면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시간은 자연스럽게 미국 고등학교 시절로 건너뛰어 한없이 여리고 서툰 열일곱 소년과 소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성인이 돼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간의 오해를 푼 두 사람은 그제야 어른이 되고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세계로 한발 내딛는다.

해인과 안나의 두 엄마는 소설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누구의 엄마가 아닌 '혜진'과 '정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여자로서 사랑을 추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없이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해인과 안나 뒤에는 그들의 현재를 만든 엄마, 혜진과 정인이 있다. 엄마들은 자식들의 지금이다. 자식과 부모는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일 뿐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또 다른 이에게 전하고 만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마지막 필름, 무엇을 찍을 것인가?



카메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생각은 사진을 찍는 사람이 한다. 하지만 어떤 카메라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내 품에 들어와 사진을 찍어 주고 있는가 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시대의 뜨거운 삶의 단상을 기록하기 위해 오늘도 카메라를 든다. – '최후의 언어'(이상엽/북멘토) 중–

/황재용기자 hsoul38@

'생명 존중' 고집하는 농부들 이야기

화제의 책

'유기농 농사' 한살림 생산자 16명의 체험기

살리는 사람 농부 김성희/한살림



"원래 제초제는 안 쳤고, 이화명충이나 매미충약도 끊었더니 첫해에는 반이나 거뒀나? 그 다음해에는 조금 낫고, 한 삼 년 동안은 제대로 소출이 없었어요. 농사 지은 쌀도 어디 따로 낼 데가 없으니까 그냥 정부수매에 일반 쌀과 섞어서 낼 수밖에 없었고…." 당시만 해도 유기농을 실천하는 일은 단순히 줄어드는 소출을 감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갖은 협박과 회유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p.35>

저자는 어떤 보상도 없고 알아주는 이 하나 없던 상황에서도 무농약 농사를 지으며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던 사람들, 또 같은 마음으로 가축을 기르고 소금을 만들어 낸 한살림 생산자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저자와 사진작가는 밭에서 농부를 만났다. 같이 밭에 들어가 바지를 걷어 올리고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다.

온종일 그들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 표정까지 담아내려고 애썼다. 저자는 "생명이 있는 것 들을 가여워하는 농부들의 마음이 엿보여 마음이 설레였다"고 말했다.

책은 거래관계를 넘어 살아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먹거리를 기르고 나누며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온 농부들의 간절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박지원기자 pjw@

“쌀쌀한 날씨 따뜻하게 속 채우세요”

외식업계, 동절기 한정 메뉴 잇따라 출시





스쿨푸드 ‘돈까스커리라면’, 놀부 ‘매생이굴국밥’, 맥도날드 ‘디럭스 슈림프 버거’ (왼쪽부터).

외식업체들이 동절기에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속속 내놓고 있다. 쌀쌀한 날씨에 따뜻하고 든든하게 속을 채워줄 시즌 메뉴는 여름내 더위로 잃었던 입맛을 되찾게 해준다. 스태미나에 도움이 되는 재료를 선택해 맛뿐만 아니라 영양의 밸런스까지 고려한 메뉴가 대부분이다.

맥도날드는 신제품 ‘디럭스 슈림프 버거’와 ‘핑크 레모네이드’를 출시하고 11월 30일까지 한정 판매한다.

디럭스 슈림프 버거는 통새우가 들어간 새우 패티를 사용해 새우 본연의 맛과 탱글탱글한 통새우의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야채가 들어간 아삭아삭 사우전 아일랜드 소스가 새우 패티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싱싱한 양상추와 고소한 치즈까지 더해져 더욱 풍성한 식감을 자랑한다. 핑크 레모네이드는 선명한 분홍빛의 과일 에이드 음료로 톡톡 튀는 탄산에 레몬 과즙이 어우러져 상큼하면서도 청량한 맛을 선사한다.

스무디킹은 가을을 맞아 생과일의 풍부한 영양과 진한 맛을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후르츠 스퀴즈티 2종’을 선보였다.

‘레몬티’와 ‘자몽티’로 주문 즉시 생과일을 직접 짜서 만들어 새콤하고 신선한 레몬의 맛과 달콤하고 쌉싸름한 자몽의 맛을 과육과 함께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캐주얼 한식 프랜차이즈 스쿨푸드는 가을과 겨울 동절기 시즌을 겨냥한 4가지 메뉴를 준비했다. 각 매장에 따라 카레라면 2종과 역전우동·오뎅탕 등의 동절기 메뉴가 제공한다. 이들 메뉴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카레라면은 바삭하게 튀겨낸 돈가스를 얹은 ‘돈가스 카레라면’과 통통한 치킨에, 황금푸드의 대표주자인 카레 국물·라면의 조합이 돋보이는 ‘통 통닭 카레라면’ 등 2종으로 구성됐다.

외식기업 놀부의 놀부보쌈이 동절기 시즌 신메뉴 ‘매생이 굴 국밥’과 ‘생굴 보쌈’을 내놨다.

‘매생이 굴 국밥’은 제철을 맞은 매생이와 싱싱한 굴을 푸짐하게 담아 시원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식감과 목 넘김이 부드러운 웰빙 해조류 ‘매생이’와 살집이 튼실하게 오른 ‘바다의 우유’ 굴이 만나 풍부한 풍미를 자랑한다. ‘생굴 보쌈’은 기름기를 쏙 뺀 담백한 수육에 통영산 생굴을 곁들인 메뉴로 특히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시즌메뉴라는 점에서 고객들의 입맛을 한층 돋울 예정이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강강술래 “이른 추위에 곰탕매출 3배”

입맛 돋우고 면역력 높여 인기몰이
내달 14일까지 30%할인에 덤 증정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뜨끈한 건강 보양식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외식 업체인 강강술래의 한우사골곰탕도 전주보다 매출이 3배 이상 상승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강술래 곰탕은 환절기 기력 보충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며,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넣지 않고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다. 또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먹을 수 있어 조리도 간편하다

전 매장에서는 11월 14일까지 곰탕 대용량선물세트(800㎖·5팩·15인분)를 30% 할인된 3만8800원에 판매한다. 구매 때 소용량선물세트(350㎖·5팩·10인분·2만2500원)를 덤으로 준다.



같은 기간 상계·홍대·시흥·늘봄농원점은 소고기 구이메뉴를 주문하면 한우불고기·돼지고기 구이메뉴를 증정한다. 돼지양념구이를 주문한 만큼 무료 증정한다. 신림점은 소고기 구이메뉴 주문 때 한우불고기를 추가로 준다. (해피아워/정식류 제외, 신림·시흥점 주중에만 진행)

또 매장에서 산타리타 히어로 카버네쇼비뇽 와인 1병을 시키면 결재 때 산타리타 히어로 멜롯 와인 1병을 무료 증정한다.

이와 함께 강강양념구이(520g)와 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500g)으로 구성된 나들이세트는 이달 31일까지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40% 할인된 6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정영일기자



한우 먹고 건강 지키고 축산농가도 돕고 현대백화점 그룹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가 운영하는 푸드코트 전문 브랜드 ‘에이치 키친’은 다음 달 1일 ‘한우의 날’을 맞아 현대백화점 9개 점포에서 한우쇠고기볶음밥(카오팟누아)·한우해물탕면 등 한우 신메뉴 8종을 선보인다. 또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 1일~2일까지 한우 신메뉴 전품목을 10% 할인해 준다. /현대그린푸드 제공

롯데리아, 유럽풍 레스토랑 ‘빌라드 샬롯’



롯데리아 (대표 노일식)의 레스토랑 사업본부가 오는 30일 잠실 롯데 월드타워 지하 1층에 유럽풍 레스토랑 브랜드인 ‘빌라드 샬롯’ 1호점을 개장하고 본격적으로 신규 외식 사업을 벌인다.

‘빌라드 샬롯’은 유럽의 저택에서 홈 메이드 음식을 준비한 후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한다는 브랜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유러피안의 감성과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유럽풍 카페 & 다이닝 콘셉트의 레스토랑이다. 20~30대 여성들의 웰빙과 건강을 추구하는 외식 형태를 반영한 홈 메이드 제품 운영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연말까지 5개 점포 영업 개시 등 공격적인 출점을 통해 외식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정영일기자

푸르밀, ‘카페베네 딸기크림치즈라떼’ 출시

우유에 카페베네 크림치즈, 국산 딸기과즙 함유

유가공 전문업체 푸르밀(구 롯데우유)이 디저트 가공유인 ‘카페베네 딸기크림치즈 라떼(300㎖·사진)’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상큼한 딸기와 부드러운 크림치즈 젤라또가 어우러진 달콤한 디저트 음료인 카페베네의 ‘딸기 크림치즈 프라페노’를 가공유 형태로 제품화한 것으로 카페베네에서 직접 공급한 크림치즈에 푸르밀의 신선한 원유와 국내산 딸기과즙이 들어간 신개념 디저트 가공유 제품이다.

푸르밀은 2012년 카페베네와 업무 제휴 협약을 맺은 후 푸르밀의 유가공 제조 노하우와 유통망과 카페베네의 커피 기술력을 바탕으로 카페베네 컵커피(200㎖) 3종(카페라떼·카페모카·카라멜마끼아또)과 카톤 제품(300㎖) 3종(카페라떼·카페모카·오곡라떼)을 선보인 바 있다.

푸르밀 관계자는 “디저트 열풍 따라 편의점에서도 디저트 음료를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카페베네 딸기크림치즈 라떼를 출시하게 되었다”며 “카페인이 없어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특히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많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권장 소비자 가격은 1500원이다. /정영일기자



가을 피부 '오리진스 크림'으로 수분 충전

오리진스 '내 생에 첫 오리진스' 이벤트 3개월 내 공병 가져오면 정품 크림 증정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가을에는 피부도 몸살을 앓는다. 땀과 피지는 물론 수분이 급격히 줄어 피부 탄력은 떨어지고 주름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 메마른 가을날,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분 관리가 중요하다.

뷰티 전문가들은 "피부 건조증뿐 아니라 주름·노화·기미 등 피부 트러블은 모두 피부의 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평소 수분크림을 꾸준히 발라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화장품 브랜드 오리진스는 수분크림이 필요한 가을철을 맞아 특별한 행사를 벌인다.

베스트셀러 수분 라인 '메이크 어 디퍼런스' 라인의 연말 매거진 어워드 수상을 기념해 '내 생에 첫 오리진스'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

11월 1일부터 매장에서 '메이크 어 디퍼런스 수분 트리트먼트 크림'을 구매하는 고객 선착순 600명을 대상으로 구매 제품의 공병을 가지고 3개월 안에 매장에 다시 방문할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정품으로 증정한다. 제품은 1인 1개 한정으로 판매한다.

김아영 오리진스 홍보팀 대리는 "평소보다 건조해지기 쉬운 환절기 더 많은 고객들이 자연주의 오리진스의 베스트셀러 수분 트리트먼트 크림을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이크 어 디퍼런스 수분 트리트먼트 크림'은 오리진스 9년 연속 판매 1위의 베스트셀러로 주름 개선 기능성을 인증 받아 수분 케어와 안티에이징 효과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척박한 사막에 서식하며 '부활의 식물'로 알려진 로즈 오브 예리코와 리치 추출물·워터 멜론 성분이 피부 속 천연 보습인자(NMF) 생성을 도와 피부 스스로 수분을 생성하고 저장할 수 있게 돕는다. 바르는 즉시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보습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오리진스 '메이크 어 디퍼런스 수분 트리트먼트 크림'(50㎖·5만5000원대) : 부활의 식물 로즈 오브 예리코와 오리진스만의 혁신적인 기술 '하이드라-서스테이닝 콤플렉스'를 함유해 피부 자체의 보습력은 높이고 강력한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는 수분 트리트먼트 제품.

'포미족' 겨냥 친환경 주방용품 인기

"비싼 가격에도 큰 관심"

나를 위한(For me)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포미족'이 늘면서 주방용품 업계가 친환경 소재 제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비교적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가진 제품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독일 주방 브랜드 실리트(Silit)사의 '비탈리아노 레드 전골냄비'(사진)는 직접 개발한 실라간 소재를 사용한 제품이다.

밀폐용기도 주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구 중 하나다.

국내 도자기 브랜드 젠의 도자기 밀폐용기는 수분 흡수가 안 되고 뚜껑이 완전히 밀폐돼 식품 보관과 저장에 좋다.

락앤락 오븐글라스 웨이브스팀홀은 열에 강한 내열유리 소재의 몸체와 실리콘 소재의 뚜껑까지 모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 오븐글라스 유로스팀홀은 웨이브스팀홀과 같은 내열유리 몸체에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뚜껑을 적용해 스팀배출구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밀폐력을 강화한 제품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손 댈 필요없이 신고 벗는다"

트렉스타,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슈즈 '핸즈프리'

"한 손으로 끈을 조이는 보아 기술에서 진일보했습니다. 핸즈프리는 손을 댈 필요가 없는 혁신 신발입니다."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 권동칠 대표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핸즈프리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신제품은 현대인의 바쁜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신발 끈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통 등산화를 선보여 온 트렉스타는 이번에 도심에서 캐주얼하게 신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슈즈를 출시, 신발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이날 공개된 '핸즈프리'는 국내 최초로 몸을 구부려 손을 쓰지 않고도 신을 수 있는 신개념 신발로,



오렌지·남색·청록색의 운동화와 가죽 소재의 캐주얼 슈즈 등 총 5가지로 구성됐다.

기존에는 신발 끈을 매기 위해서 몸을 굽히고 최소한 한 손을 써야 했지만 핸즈프리는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뒷축 아래 부분을 가볍게 당기기만 하면 된다. 벗을 때도 간편하게 뒤축의 장치를 다른 발로 누르면 신발 끈이 풀어져 쉽게 벗을 수 있다는 게 트렉스타의 설명이다. 특히 ▲양 손에 짐을 들었을 때 ▲손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할 때 ▲아이를 안고 손가방을 든 경우 ▲손을 다치거나 쓰지 못하는 상황 등에서 유용하다고 업체 관계자는 덧붙였다.

내년 초에는 핸즈프리 기술을 적용한 아동화도 선보일 계획이다.

권 대표는 "트렉스타는 항상 혁신을 추구하며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해 왔다"면서 "핸즈프리는 편리함·청결함·디자인을 모두 갖춘 슈즈로 신발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기차타고 '외씨버선길' 걸어볼까?

영월·봉화·청송·영양 코스 연계 관광객 유혹

코레일관광개발이 운영 중인 '외씨버선길 걷기축제 기차여행'이 화제다.

외씨버선길은 우리나라 대표 청정지역인 영월·봉화·청송·영양 등 4개 군이 모여 만든 총 240㎞의 트레킹 코스로 지역별로 각기 다른 코스로 구성돼 있다.



또 천혜의 자연 풍경과 다양한 볼거리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봄이 기차여행을 상품을 출시해 총 4회 운영을 했으며 지난 25일과 26일에도 영월·봉화 코스를 성공적으로 운행했다.

아울러 다음 달 7일과 9일에는 청송코스와 영양코스로 기차여행이 출발한다. 특히 청송코스에서는 주왕산 트레킹과 함께 청송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사과와 달기약백숙 등을 맛볼 수 있으며 영양코스는 봉화역에 도착한 후 선바위관광지부터 시작된다.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전국의 청정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건강한 녹색관광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햅쌀, 맛있게 먹으려면~ 보관이 중요

직사광선 차단, 서늘한 곳에… 고추·은행잎 등 섞도록



햅쌀 제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윤기 가득한 맛있는 밥을 위해서는 좋은 햅쌀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보관법이 더 중요하다. 쌀벌레의 번식이나 수분증발 등 밥맛의 변질을 일으키는 주요소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먼저 햅쌀을 1년 내내 맛있게 먹으려면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특히 햇빛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쌀의 수분이 증발돼 금이 가고 그 사이로 녹말이 빠져 나와 영양소의 손실이 쉽기 때문에 햇볕이 심한 곳을 피해 보관해야 한다. 페트병이나 밀폐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 또한 쌀의 수분 증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냉장 보관 때에는 각종 잡냄새가 쌀에 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가을과 겨울에도 실내온도가 높으면 쌀벌레가 생기기 쉽다. 쌀벌레는 쌀바구미라는 벌레와 유충인데 쌀의 영양소를 파괴하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쌀벌레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면 쌀 10㎏ 용량 기준으로 마른고추 4~5개나 통마늘을 넣고 2개월에 한번씩 교체해준다. 은행나무 잎을 활용해 쌀벌레를 퇴치하는 방법도 있다. 노란 은행나무 잎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면 보자기나 면 주머니에 싸서 쌀독에 넣어 주면 된다. /정영일기자 prms@

"잘 어울리는 캐릭터 마음껏 놀았죠"



빤하지 않은 스토리 끌려 출연 결심
밝음 속 아픔 있는 역할에 깊은 공감
"내년에는 다시 일개미처럼 일할 것"

레드카펫으로 돌아온 고준희

고준희(29)는 데뷔 이후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꾸준하게 활동했다. 여느 배우들처럼 진지한 태도로 연기에 임해왔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도도한 이미지만을 눈여겨봤다. "고준희는 헝그리 정신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들으며 아파하던 때도 있었다. 그럼에도 고준희는 여유를 갖고 묵묵히 연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연기를 즐기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배우로서 자신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지난 23일 개봉한 '레드카펫'은 그런 고준희의 노력이 잘 녹아 있는 영화다. 신인 박범수 감독이 에로영화 감독으로 활동했던 과거 자신의 경험이 바탕이 됐다. 상업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에로영화 감독 정우(윤계상)가 과거 아역 스타였으나 이제는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진 여배우 은수(고준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꿈을 향한 젊은이들의 열정과 희망을 담아냈다.

고준희는 은수를 "마음껏 놀 수 있는 캐릭터였다"고 소개했다. 그만큼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역할이었다는 뜻이다. 물론 캐릭터에 대한 매력만으로 작품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남녀주인공의 로맨스가 주가 되지 않는 로맨틱 코미디"라는 독특함과 신선함에 매료됐다.

"빤하지 않은 스토리라서 좋았어요. 박범수 감독님 본인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녹아 있다는 점도 신인 감독의 작품임에도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의미 있는 로맨틱 코미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극중 은수는 정우와의 첫 만남부터 거침없다. 낯선 남자에게 프라이팬을 마구 휘두르는 은수는 얄밉지만 좀처럼 미워하기 힘든 캐릭터다. 전세 사기를 당한 끝에 정우와 어색한 동거를 하게 되지만 오히려 정우보다 더 주인 같이 행세하는 뻔뻔스러움은 귀여운 매력으로 다가오기까지 한다.

에로영화 감독과 여배우의 로맨스라는 점에서 '19금'스러운 에피소드를 기대할 법도 하다. 그러나 영화 속 은수와 정우의 로맨스는 19금과는 거리가 멀다. 고준희도 처음에는 은수와 정우의 '순수한' 로맨스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은 무엇이든 '빨리 빨리'인 LTE 시대잖아요. 그래서 스킨십이 느린 은수와 정우 커플이 이해 안 가기도 했어요(웃음). 하지만 감독님의 의도는 에로영화 감독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연애



스타일은 LTE 세대와 비슷해요. 다만 좋아하는 사람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은수와 닮았죠."

그러나 고준희가 영화 속에서 시종일관 밝고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아역 스타였다는 사실마저도 숨겨야 하는 나름의 아픔과 외로움이 은수의 이면에 있기 때문이다. 아역 출신 수식어를 떼고 진짜 배우로 출발하기 위해 오디션에 나서는 신에서 그런 은수의 인간적인 모습이 잘 나타난다. 고준희는 은수의 아픔과 외로움에서 배우라는 직업의 고충을 발견하고 공감했다.

"은수는 구질구질한 상황에서도 애써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쿨'한 척하는 아이에요. 다른 배우들도 은수와 비슷할 거예요. 배우는 일이 없어도 '요즘 왜 작품이 없어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마치 작품을 고르는 척 하잖아요. 작품을 갈망하고 있음에도 그런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대중들은 배우가 '구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배우라는 직업에 대한 판타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배우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조금은 밝은 척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가을 '레드카펫'의 촬영을 마친 고준희는 '결혼전야'가 개봉한 뒤 한 동안 휴식을 취했다. '레드카펫'의 개봉과 함께 현재는 임상수 감독의 신작 '나의 절친 악당들'(가제)을 촬영 중이다. 고준희는 새 영화 속 캐릭터에 대해 "견인차를 몰며 폐차장에서 먹고 자는, 지금까지 보여준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캐릭터"라고 귀띔한다. 배우 고준희의 또 다른 변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스러움과는 거리가 먼 아이에요. 은수랑은 정반대죠. 연말까지는 임상수 감독님 영화를 열심히 찍을 계획이에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영화도 드라마도 함께 하면서 예전처럼 열심히 일개미처럼 일할 거예요(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김아람





만화 원작 드라마 인기 어디까지?

'내일도칸타빌레' '미생' '라이어게임' 큰 반응 '닥터 프로스트' '치즈 인 더 트랩'도 드라마화

만화를 리메이크한 드라마 제작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KBS2 월화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와 tvN 월화드라마 '라이어게임', 금토드라마 '미생'이 방영 중이다. 여기에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두 편이 방송을 앞두고 있다.

OCN은 내달 23일 이종범 작가의 '닥터 프로스트'를 드라마로 선보인다. '닥터 프로스트'는 지난 2011년 독자만화대상 온라인 만화상을 수상하며 인기를 모은 네이버 웹툰이다. 천재 심리학자인 닥터 프로스트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사팀에 합류해 범죄를 해결하는 심리 수사극이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이 작가는 '닥터 프로스트'로 어렵게만 느껴지던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우 송창의가 연기할 주인공 프로스트는 30대 중반의 미남 천재 심리학자로 겉모습은 완벽하지만 내면에는 타인에 대한 애정·연민·동정 등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얼음 같은 인물이다. 프로스트는 일상 속 범죄를 천재적인 추리능력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을 심리학으로 치료한다.

송창의는 "원작 웹툰을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롭고 신선했다"며 "새로운 변신에 기대되고 설렌다. 원작 만화를 좋아해서 그런지 프로스트 캐릭터에 더욱 애정이 간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송창의는 원작 만화 캐릭터를 따라잡기 위해 흰색에 가까운 은발로 염색해 원작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네이버 인기 웹툰 '치즈인더트랩'도 드라마 제작이 확정됐다.

드라마 '치즈인더트랩' 제작을 맡은 에이트웍스는 지난 15일 "현재 유명 드라마 작가가 대본을 집필 중"이라며 "이달 안에는 초고가 나올 예정이며 곧 캐스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연재를 시작한 '치즈인더트랩'은 순끼 작가의 작품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대생 홍설의 인간관계와 복잡한 심리상태를 치밀하게 묘사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홍설과 유정·백인호 등 주연 캐릭터들은 드라마 제작 전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상 캐스팅이 거론되며 드라마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태다.





제작사는 "드라마 제작 소식에 다수의 기획사와 배우들이 관심을 보여 인기에 놀랐다"며 "아직 캐스팅은 확정되지 않았다. 원작 인기와 충성도 높은 독자의 기대감에 만족할 수 있는 스토리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마니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웹툰이 드라마의 소재로 많이 거론된다. 하지만 원작의 캐릭터 및 전개가 다를 경우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작자와 스태프가 제작 방향에 대해 많이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데이브레이크 콘서트 '프리즘' 개최

장기호·노리플라이 등과 협연

밴드 데이브레이크가 콘서트 '프리즘'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한다.

오는 1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리는 '프리즘'은 데이브레이크 멤버들이 기획을 담당해 게스트 섭외부터 무대 콘셉트까지 직접 지휘해 만드는 공연이다. 특히 '프리즘'은 뛰어난 연주력을 자랑하는 데이브레이크가 다른 아티스트와의 협연을 통해 새로운 무대를 선보여 음악 팬들의 호응을 얻어왔다.

이번 공연에서 데이브레이크는 평소 존경해온 선배 장기호와 최근 컴백한 절친한 밴드 노리플라이, 그리고 제이레빗, 박준하, 오늘의 라디오 등과 함께 무대를 꾸밀 계획이다.

데이브레이크 관계자는 "다양한 팀과 협연 무대를 꾸미는 만큼 평소와는 차별화된 편곡 및 연주로 독특한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민기자

슈퍼주니어-M 조미 솔로 데뷔

첫 미니앨범 '리와인드' 한·중 동시 발표

SM 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새로운 남자 솔로 가수를 선보인다.

슈퍼주니어-M의 중국인 멤버 조미(사진)는 오는 31일 국내 온라인 음원 사이트와 중국 바이두 뮤직을 통해 첫 미니앨범 '리와인드(Rewind)'를 공개하고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공략한다.

SM은 지난 27일 SM 타운 공식 페이스북·웨이보·트위터 등을 통해 남자 솔로 가수 출격 소식을 알려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 주인공이 바로 조미다. 그는 훤칠한 키와 뛰어난 노래·춤 실력으로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조미는 MBC 뮤직과 중국 동영상 사이트 '요우쿠' 등에서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 '우상본색' MC를 맡고 있다. SBS MTV와 중국 동영상 사이트 '투도우'에서 동시 생방송되는 음악 프로그램 '더 쇼 시즌4'의 MC로도 발탁돼 한국과 중국을 아우르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조미의 첫 솔로 앨범은 다음달 3일 오프라인에 발매된다.

/김지민기자





오디션 스타의 만남

김그림·백청강 듀엣 '사랑 내사랑'

엠넷 '슈퍼스타K2' 출신 김그림과 MBC '위대한 탄생' 우승자 백청강이 만났다.

김그림은 28일 정오 백청강과 함께 부른 새 프로젝트 앨범 '그 남자'의 첫 번째 곡 '사랑 내사랑'을 공개한다. '사랑 내사랑'은 1990년대 유행했던 마이너풍의 발라드 곡으로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남녀가 지난 사랑을 돌이켜보며 그리워하는 가사를 통해 애절함을 표현했다.

프로젝트 앨범 '그 남자'에서 김그림은 남자 가수들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김그림은 백청강을 시작으로 다른 남자가수들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지민기자


"내 딸이 사라졌다.
범인은 가족 중 한 명이다!"
tvN 일일드라마
가족의비밀
tvN 일일드라마의 부활!
신은경 김승수 차화연 류태준 이일화 효영
오늘 저녁 7시 45분 tvN 방송 * 매일 {월~목} 방송





‘세자’ 성장 담은 사극

‘비밀의 문’ 사도세자·‘왕의 얼굴’ 광해군… 엇갈린 평가 재구성

왕위를 이어받을 아들, 왕 세자가 재조명 받고 있다. SBS 월화드라마 ‘비밀의 문’과 KBS2 새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은 각각 사도세자와 광해군의 이야기를 담는다. 두 작품은 전혀 반대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세자의 일부분에 집중해 그들의 성장담을 중심으로 역사를 재구성한다.

‘비밀의 문’은 사도세자의 죽음을 소재로 궁중 미스터리를 더했다. 작품은 ‘왜 아비 영조는 아들을 죽여야 했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해 세자 이선이 비극적인 죽음에 이른 과정을 그린다.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사도세자는 아내의 기록인 한중록에는 흉악한 병에 걸린 광인, 사관 기록인 영조 실록에는 28세까지 정사를 무리 없이 끌고 간 왕재로 기록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의 문’은 실록에 무게를 두고 이선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주 방송에서 세자 이선(이제훈·**왼쪽 사진**)은 노론의 결탁을 담은 비밀 문서 맹의에 서명한 ‘죽파’라는 인물이 아버지 영조(한석규)임을 알아챘다. 실망한 그는 영조의 맞은 편에 서기로 해 부자(父子)의 비극적인 갈등이 시작됨을 알렸다.

‘왕의 얼굴’은 선조와 광해군의 미스터리를 다룰 예정이다. 작품은 ‘선정을 베풀고 수많은 업적을 남긴 선조는 왜 그렇게 못난 왕으로 남게 됐나? 그는 왜 광해를 미워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광해의 세자시절을 그려낸다는 데서 주목 받고 있다. 광해는 ‘쫓겨난 폭군’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립 외교를 펼친 현실적인 군주’라는 엇갈리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광해를 폭군으로 묘사한 작품은 많았지만 젊은 광해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없었다.

‘왕의 얼굴’은 폭군이라는 평가에 가려진 광해의 세자 시절을 조명한다. 극중 광해군은 선한 가치를 지켜가는 패기있는 인물이다. 아들 광해를 견제하며 왕권을 지키려는 선조의 위협을 극복해가는 광해의 왕권쟁탈전도 극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광해 역을 맡은 서인국(**오른쪽**)은 “이미 많은 선배들이 그려낸 인물이라 부담되기도 한다. 열심히 해서 서인국만의 광해를 연기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아이언맨’ 후속으로 내달 중순 방송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jeonhj89@metroseoul.co.kr

KBS 프로그램 ABU상 수상

‘TV유치원 콩다콩’·‘…최다니엘입니다’ 최우수상

KBS2 어린이 프로그램 ‘TV유치원 콩다콩’과 KBS 2FM ‘더 가까이 최다니엘입니다 : 특집 실종 어린이 찾기’가 27일 마카오에서 열린 ABU상 시상식에서 수상했다.

ABU상은 260여 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송사를 회원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가 주관하는 상이다. 아시아 지역의 다양성과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작품을 선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TV유치원 콩다콩’은 TV 어린이 부문 최우수상, ‘더 가까이 최다니엘입니다:특집 실종 어린이 찾기’는 인터랙티브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TV유치원 콩다콩’은 KBS2TV에서 월요일~목요일 오후 4시부터 방송되는 미취학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이다. 유아 방송 전형을 탈피한 유아 주도적인 제작 과정과 내용을 선보인 것이 높이 평가 받았다.

‘더 가까이 최다니엘입니다:특집 실종 어린이 찾기’는 지난해 8월 5일 방송된 두 시간 특집이다.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 플레이어, SNS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방송에 활용한 사례로 주목 받았다. /전효진기자



부활하라 ‘단막극’

2014 페스티벌 성황리 마무리

2014 단막극 페스티벌이 25일 막을 내렸다.

지난 23일부터 열린 2014 단막극 페스티벌에서는 SBS 플러스 ‘도도하라’ 제작발표회를 시작으로 인기 단막극 15편 상영회, 멀티 플랫폼 드라마 기획안 공모전 수상, 단막극 비즈니스를 위한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우 서강준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자리를 함께 했다.

15편의 단막극 상영회는 서울 CGV 여의도 1관에서 열렸다. 개막작 KBS ‘괴물’을 시작으로 ‘노리코 서울에 가다’, 낚시TV ‘손맛’, KBS ‘간서치열전’, MBC ‘이상 그 이상’, 네이버 TV캐스트 ‘출중한 여자’, KBS ‘다르게 운다’가 상영됐다.

상영회를 마친 후 관객과의 대화(GV) 프로그램에서는 배우 변희봉·한주완·김소현·민지아, 아역배우 갈소원이 참석해 관객 질문에 답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KBS2 2014 드라마 스페셜 ‘간서치열전’에 출연한 한주완은 “단막극은 휴식 같은 존재”라며 애정을 보였다.

특히 KBS 최초의 웹드라마이자 웹과 TV의 융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작품 ‘간서치열전’은 이번 행사 초청을 계기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드라마 제작진은 “대한민국에서와 같은 방식인 인터넷 전송과 방송을 묶어 배급하는 형태로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며 “빠르면 연내 진행할 목표를 두고 사내 유관 부서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1년부터 드라마 다양성을 확보하고 신인 발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단막극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TV 단막극의 부가가치창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전효진기자





2014 단막극 페스티벌 홍보대사 배우 서강준(위)과 KBS2 2014 드라마 스페셜 웹드라마 ‘간서치열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BS 제공



28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1회 대종상 영화제'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궁원(왼쪽부터) 한국영화인총연합회장, 이규태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장, 홍보대사 배우 엄정화, 송강호가 포토타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시작부터 파행 빚은 대종상

개최 권한 싸고 내부 갈등… 내달 21일 열기로

제51회 대종상영화제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대종상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51회 대종상영화제 일정과 심사 과정을 소개하고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영화인연합회 산하 8개 단체가 조직위원회 측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소동이 빚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한국영화감독협회 정진우 이사장은 "영화인과 영화인협회가 소외된 대종상영화제가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며 조직위원회 측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조직위원회와의 협약서를 통해 영화감독협회장이 집행위원에 오르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걸 조직위원회가 뒤엎었다"며 "남궁원 한국영화인총연합회장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직위원회 측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자회견을 마쳤다.

대종상영화제는 그 동안 수상 결과의 공정성과 조직 내부 문제 등으로 끊임없는 논란에 휘말려왔다. 지난해 비교적 공정한 수상 결과로 50회를 기념했으나 올해 또 다시 내부 갈등이 불거져 행사가 순조롭게 막을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파행 조짐 속에서도 올해 영화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행사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후보작을 출품작 대상이 아닌 1년 동안 상영된 한국영화 전체로 확대했다.

이규태 조직위원장은 "영화를 좋아하는 모든 이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더 공정한 심사 속에 치를 것을 자신한다"며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영화제 홍보대사로는 지난해 남우주연상 수상자인 송강호와 류승룡, 여우주연상 수상자인 엄정화가 선정됐다.

송강호는 "한국영화 발전의 원동력은 관객의 뜨거운 사랑"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엄정화는 "지난해 소망했던 멋진 상을 받은 만큼 스스로 자랑스럽고 기뻤다. 올해 영화제 홍보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제51회 대종상영화제 예심은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되며 후보작은 다음달 1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11일부터 18일까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후보작 상영도 한다. 본상 시상식은 다음달 21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리며 KBS2를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초현실 감성 로맨스

'무드 인디고' 12월 개봉

'이터널 선샤인' '수면의 과학'으로 잘 알려진 미셸 공드리 감독의 신작 '무드 인디고'가 오는 12월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미셸 공드리 감독은 '이터널 선샤인' '수면의 과학' 등의 영화들을 통해 독특한 영상미와 이야기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온 감독이다. '무드 인디고'는 감성적인 사랑 이야기를 초현실적인 영상미로 담아낸 작품이다.

이번 영화에는 여러 작품들로 국내에도 얼굴을 알린 프랑스 대표 배우들이 함께 했다. '아멜리에'의 오드리 토투, '사랑은 타이핑 중!'의 로망 뒤리스, '미드나잇 인 파리'의 게드 엘마레, '사랑해, 파리'의 에이사 마이, 그리고 '언터처블: 1%의 우정'의 오마 사이 등이 열연을 펼쳤다.

영화는 보리스 비앙의 소설 '세월의 거품'을 원작으로 듀크 엘링턴의 재즈 음악과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모두 갖췄다. 올 겨울 사랑의 색채에 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호기자



김상경은 백수 아빠?

'아빠를…' 내공 있는 코믹 연기

배우 김상경(사진)이 백수 아빠가 된다.

다음달 20일 개봉하는 영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에서 김상경은 10년째 백수인 아빠 태만을 연기했다.



극중 태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해 10년째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 아빠다. 미모의 쇼호스트가 나오는 홈쇼핑을 보는 게 취미인 그는 몰래 딸 저금통에 손을 대는 등의 철없는 행동으로 아내 지수(문정희)로부터 늘 구박을 받는 신세다.

영화는 태만의 딸 아영(최다인)이 학교 나눔의 날에 아빠를 내놓겠다며 폭탄선언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그 동안 드라마와 멜로,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었던 김상경은 이번 영화에서 내공 있는 코믹 연기로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는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가족 드라마다. 김상경, 문정희, 최다인을 비롯해 조재윤, 채정안, 남보라, 걸스데이 민아 등이 출연한다. /장병호기자

'화장' 연이은 영화제 러브콜

스톡홀름·런던영화제 초청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 '화장'에 대한 해외 영화제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장'은 다음달 5일 개막하는 제25회 스톡홀름국제영화제의 '아시안 이미지' 부문에 초청됐다. 스톡홀름국제영화제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국제 영화 제작자 연맹 공인 영화제로 북유럽을 대표하는 영화 축제다.

'화장'의 해외 배급을 담당하는 화인컷은 스톡홀름국제영화제 프로그래밍 팀이 '화장'에 대해 "사랑과 책임에 대한 강렬한 고찰이며 인간 육체의 비참한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조명하고 있다"고 평했다고 전했다.

또한 '화장'은 다음달 6일 개막하는 제9회 런던한국영화제 폐막작으로 영국 관객들과 만난다. 런던한국영화제는 관객들 중 80%가 현지인일 정도로 영국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영화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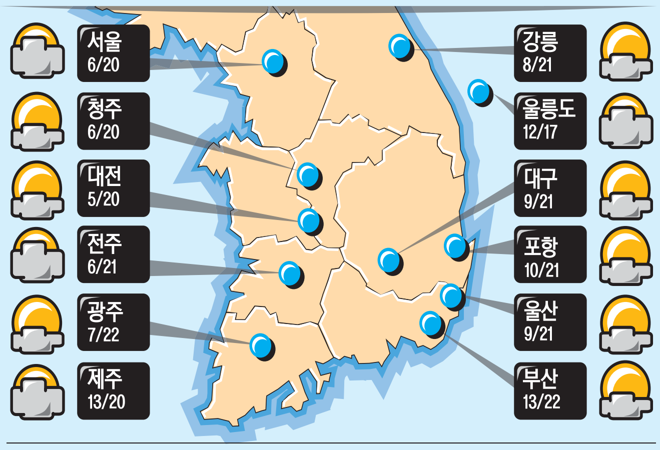


'화장'은 앞서 베니스·토론토·벤쿠버·하와이·부산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됐다. 2004년 제28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김훈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올 하반기에 개봉한다. /장병호기자

날씨

10/29 水 일출시각 06:53 일몰시각 17:3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긴장이 심해지면 분비되는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고혈압과 뇌졸중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여유와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6				9		4	
		7	6				8	3
4	8							
		8		6				9
			1		8			
6				9		8		
							1	5
8	9				4	6		
	2		3				7	8

7	1			4	5			
	4	9				2		
								6
		2		9				8
6			8		2			9
4				5		7		
3								
		7				3	8	
			6	8			7	5

스도쿠 정답

5	6	2	8	3	9	7	4	1
9	1	7	6	4	5	2	8	3
4	8	3	2	7	1	5	9	6
2	3	8	4	6	7	1	5	9
7	5	9	1	2	8	3	6	4
6	4	1	5	9	3	8	2	7
3	7	6	9	8	2	4	1	5
8	9	5	7	1	4	6	3	2
1	2	4	3	5	6	9	7	8

7	1	6	2	4	5	8	9	3
8	4	9	3	6	1	2	5	7
2	5	3	9	7	8	4	1	6
5	3	2	4	9	7	1	6	8
6	7	1	8	3	2	5	4	9
4	9	8	1	5	6	7	3	2
3	8	5	7	1	9	6	2	4
9	6	7	5	2	4	3	8	1
1	2	4	6	8	3	9	7	5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캣우먼

임경선 칼럼니스트
askcatwoman@empal.com

착한 성격과 인상 연애땐 콤플렉스 상처받기 싫은 방어… 표현방법 필요

Q Hey 캣우먼!
20대 중반 여성인 저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성격과 첫 인상은 '순하고 착하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상처받기 싫고 소심한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싸우느니 양보하고 정말 싫으면 멀리하죠. 그런데 연애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간 남자친구들은 모두 저를 착하고 순진하다고 했는데 저는 싫은 말을 정말 못했어요.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또는 '저 사람이랑 멀어져야겠다' 밖엔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예전부터 미움받는 걸 싫어하다 보니 참고 넘기거나 회피하는 이른바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문제인 것 같아요. /브라운슈가

A 내키지 않은 '착함'은 바꿔 말하면 '예민함'입니다. 자신을 수동체로 간주하고 '저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당했다. 참 무신경한 사람. 난 이렇게 상처 입었는데 말 한 마디 못하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나의 착하고 순진함이 반드시 상대에게 기쁘거나 이롭지는 않다는 것! 당신도 이미 알듯이 착하게 행동하려는 마음의 뿌리를 따라가보면 그것은 상처와 미움을 회피하는 이기적인 방어적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호자로부터 언어적·정서적 학대를 받아 늘 말을 잘 듣고 생글생글 웃고 있어야 인정받았던 내성이 굳어진 걸 수도 있지요. 내 안의 분노를 드러내면 타인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의 특징이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웃는, 착한 여자로 일관한다면 상대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 힘들고 점점 껍데기와 연애하는 기분일 겁니다. 사람들은 무리하는 미소보다 솔직한 모습을 좋아합니다. 조금만 촉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무리하는 게 다 보이고 그게 불편해서 먼저 멀어지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감지되는 '느낌'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어서 챙기십시오. /캣우먼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주위에 친구가 없어 외로움 느껴요 자기계발·기도하면 긍정기운 가져

Q 꿈을 잊지 말자 여자 88년 4월 20일 음력 새벽 5시 50분

요새 드는 많은 생각은 제 주위에 친구들이 없는 거라는거죠. 88년 4월 20일 새벽 5시 50분으로 여자이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연락하지 않는 이상 주위에서 먼저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그러지를 않아요. 예전부터 느꼈는데 이젠 나이가 들수록 친구에 대한 외로움과 서운함이 무척 듭니다. 전 혼자인가요?

A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 상대도 나를 좋아하기를 바라지요. 이 또한 보상의 한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바라는 대로 채워지기도 힘들고 원하지 않는 일과 맞닫뜨리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음이란 것이 때로는 얼마나 요물이고 때로는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리가 없지요. 현상에서 변화되는 마음의 힘을 안정시키는 데는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기도를 하되 의심을 떨쳐버리고 나를 둘러싼 하늘과 땅과 신묘한 우주의 영성과 작용하는 그 원리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학관계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이뤄지면 이 세상에 근심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이들에게 가피의 기적이란 생각할 수도 없고 복락 또한 먼 얘기가 됩니다. 기도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힘을 갖게 하며 인간의 이성으로만 판단한다면 인정하기 힘든 여러 현상에 대해 마음의 문이 열리게도 됩니다. 인간의 판단이란 것이 이차원이나 삼차원에 근거한 것이기에 여러 근심걱정의 해결과 원만함을 위해서 긍정의 기운을 얻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이 적어지게 되며 상대가 네게 갖는 부담도 적어지면서 지금의 상황들이 희석이 될 것입니다. 사주상 귀하는 생일이 경인일주(庚寅日柱)로서 깔끔하지만 반면 백호(白虎. 흰 호랑이)의 상으로 강직하여 대인관계에서 진실한 유대가 어려운 편입니다. 칠살(七殺)과 편인(偏印:나를 생해주는 오행)의 조합은 부부궁도 원만치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발에 힘쓰도록 하는 것도 평상시 기도의 원력이 될 것이니 진정성이 없는 섣부른 외로움에 자신을 맡기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9일 (음 윤 9월 6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쥐 **48년생** 욕심 부려서 걱정거리 만들지 말라. **60년생** 원하던 정보 손에 넣는다. **72년생** 확실한 입장 표명으로 시비 잠재워라. **84년생** 상사에 맞서면 잃는 게 많다.

소 **49년생** 배우자가 감동의 선물한다. **61년생** 재충전 하는 여유를 가져보자. **73년생** 간절히 원하면 없던 길도 생긴다. **85년생** 꿈을 이루려면 뜬구름도 잡아보라.

호랑이 **50년생** 당연히 할 일은 하라. **62년생** 걱정한 일은 의외로 잘 풀린다. **74년생** 승부수 신중히 띄워야 성공~. **86년생** 싱글은 마음을 흔드는 이성과 마주 앉는다.

토끼 **51년생** 자녀가 희소식 전한다. **63년생** 임원은 연임에 호재 생길수도. **75년생**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게 도박이다. **87년생** 인터넷 쇼핑은 사기 등 조심할 것.

용 **52년생** 자영업자는 매출이 껑충~. **64년생** 정직한 실수는 약이 된다. **76년생** 잘 나갈 때 겸손 하라는 말 명심~. **88년생** 마음을 열면 거짓말도 진실이 된다.

뱀 **53년생** 엉뚱한 변명은 화만 키운다. **65년생**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라. **77년생** 삶에 활력소가 될 일이 생긴다. **89년생** 우여곡절 끝 데이트는 해피엔딩~.

말 **42년생** 고민이 해결되어 콧노래 절로~. **54년생** 서쪽에 가면 웃을 일이 생긴다. **66년생** 기회 왔을 때 인생의 확실한 무기기를 만들라. **78년생** 궁하면 통한다.

양 **43년생** 걱정이 많으면 건강만 해친다. **55년생**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라. **67년생** 마음이 타들어갈 걱정거리가 생긴다. **79년생** 오라는 곳이 많아 즐거운 비명~.

원숭이 **44년생** 호랑이 그리려다 고양이 그린 격~. **56년생** 타인의 적이 되면 내 속엔 지옥이 싹튼다. **68년생** 횡재수 기대해 보라. **80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닭 **45년생** 자녀가 자신을 넘어 기쁘다. **57년생** 공돈이 생기니 기대해 보라. **69년생** 고독을 마주해보니 진짜 나가 보인다. **81년생** 처음과 끝이 한결같게 할 것.

개 **46년생** 방랑자의 여유 즐겨보자. **58년생** 남쪽과 서쪽이 길한 방향이다. **70년생** 배우자가 엉뚱한 소리할 때마다 가슴 철렁~. **82년생** 원칙을 지키면 나중에 웃는다.

돼지 **47년생**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 **59년생** 마음을 비우면 만사 편안~. **71년생** 터닝포인트 될 기회 온다. **83년생** 운전대 잡으면 안정운행에 최선 다하라.

플레이오프 다시 원점으로

LG, 신정락 호투 속 넥센에 9-2 대승



신정락

가까스로 포스트시즌행 티켓을 거머쥔 LG 트윈스가 플레이오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28일 오후 6시30분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LG 트윈스는 사이드암 신정락의 눈부신 투구를 앞세워 넥센 히어로즈를 9-2로 꺾었다.

지난 27일 적지에서 열린 1차전에서 패배한 LG는 2차전을 낚아 1승1패를 기록했다. 오는 30일 홈그라운드인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3차전을 앞두고 한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이날 경기는 7회까지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졌다. 신정락은 최고 시속 145㎞에 이르는 빠른볼과 낙차 큰 커브, 예리한 포크볼을 앞세워 7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솎아내며 2안타 1실점으로 넥센의 강타선을 꽁꽁 묶었다. LG는 넥센 선발로 나선 '20승 투수' 앤디 밴헤켄과 필승계투조인 한현희, 조상우를 모두 무너뜨리며 사기를 올렸다.

2010년 LG에 입단한 신정락이 한 경기에서 삼진 10개를 뽑은 것은 정규 리그를 통틀어 개인 최다 기록이다. 또한 포스트시즌 경기 첫 선발 등판해 승리 투수가 되는 기쁨도 누렸다.

LG는 경기 초반 밴헤켄을 상대로 한 착실한 팀 배팅으로 선취점을 뽑았다. 2회초 선두 타자 이병규(7번)가 중전안타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진영도 중전안타를 쳐 무사 1, 2루를 만들었고 브래드 스나이더는 끌어당기는 팀 배팅으로 2루 땅볼을 만들어 1사 2, 3루의 득점 찬스를 이어갔다.

기세를 몰아 LG 손주인도 2루 땅볼로 3루 주자를 불러들여 1-0으로 앞섰다. 5회에는 상대 실책 속에 추가점을 뽑았다. 7회말에는 넥센에게 추격 점수를 내주기도 했다. 1사 후 타석에 나선 유한준이 신정락의 4구째 122㎞짜리 커브를 받아쳐 가운데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그러나 LG의 뒷심은 매서웠다. 8회초 타자일순하며 대거 6점을 뽑아내 8-1로 앞서 나아갔다. 8회말 넥센이 서건창의 중전 적시타로 1점 만회했으나 승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LG는 9회초 채은성의 2루타와 박용택의 적시타로 다시 1점을 추가하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PO 2차전 28일

■목동

L G	010	010	061	**9**
넥센	000	000	110	**2**

△승 = 신정락(1승) △패 = 밴헤켄(1패)



김우현, 김승혁, 박상현 선수. /연합뉴스

KPGA 다승왕 3파전

김우현·김승혁·박상현, 유럽·일본 투어에도 참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가 시즌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다승왕을 차지할 선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7일 끝난 한국오픈까지 김우현(23·바이네르)·김승혁(28)·박상현(31·메리츠금융그룹) 등 3명이 나란히 시즌 2승을 달성해 다승왕 3파전을 예고했다.

김우현은 오는 30일부터 나흘간 롯데스카이힐 제주 골프장(파72·6989야드)에서 열리는 헤럴드경제·KYJ 투어챔피언십(총상금 3억원)에 참가해 먼저 다승왕 도전에 나선다. 같이 2승을 올린 김승혁과 박상현은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해외 투어에 출전한다.

김승혁은 같은 기간 중국 상하이의 레이크 멜라렌 골프장(파72·7607야드)에서 열리는 유럽프로골프투어 BMW 마스터스에 출전한다. 박상현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마이나비 ABC챔피언십에 나간다.

이번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김우현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최소한 공동 다승왕을 확보하게 된다. 이 대회가 끝나면 다음달 6일부터 나흘간 벌어질 신한동해오픈만이 남는데 김승혁 또는 박상현이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더라도 공동 다승왕이 되기 때문이다.

올 시즌 상반기에만 2승을 수확한 김우현은 하반기 들어 주춤해진 성적을 끌어올려야 한다. 8월 이후 참가한 3개 대회에서 단 한차례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김승혁과 박상현은 외국 대회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내셔널 타이틀 대회인 코오롱 제57회 한국오픈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승혁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투어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를 병행하는 선수다. 올해 3차례 우승을 거두며 프로 데뷔 9년만에 최고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그는 유럽투어 대회에도 도전하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SK텔레콤 오픈에서 코리안투어 첫 우승을 신고한 김승혁은 이달 초 도카이 클래식에서 JGTO 첫 우승을 맛봤다. 지난주에는 한국오픈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국내 투어에서 상금랭킹 1위에 오른 그는 코리안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인 신한동해오픈을 앞두고 이 대회를 선택했다. /김학철기자

김기태, KIA 신임 감독 선임

3년 계약에 총 10억원…"팀 색깔 바꾸겠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김기태(45) 전 LG 트윈스 감독을 제8대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KIA 타이거즈는 28일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금 2억5000만원, 연봉 2억5000만원으로 총 10억원에 김기태 감독과 계약했다고 밝혔다.

구단 측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젊은 선수들을 육성하는 데 검증이 된 김기태 감독이 '형님 리더십'을 통해 팀의 리빌딩과 융합을 위한 적임자로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기태 감독은 김동엽·김응룡·김성한·유남호·서정환·조범현·선동렬에 이어 8번째로 KIA의 사령탑에 앉게 됐다. 그는 이날 계약을 마친 뒤 "현재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며 "올해 마무리 훈련과 내년 전지훈련을 통해 팀의 색깔을 바꿔 놓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팀 재건에 주력하면서도 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팀 재건은 젊은 선수로 사람만 바뀐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선수를 비롯해 코칭스태프의 마인드 역시 변화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IA 타이거즈는 김기태 신임 감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코칭스태프 인선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김기태 감독은 당분간 광주에 머물며 선수단 현황 파악과 코칭스태프 인선 등 국내 일정을 마무리한 후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일본 미야자키 휴가시의 마무리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기태 신임 감독은 광주일고 출신으로 선동열 전 감독의 후배다. 쌍방울·삼성·SK 등에서 선수생활을 했고 2006년 SK 와이번스에서 코치직으로 지도자 데뷔에 성공했다. 2007년까지 SK에 몸담았다가 2008년과 2009년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코치 연수를 했다.

2010년부터 LG 트윈스에서 2군 감독으로 부임한 그는 2012년 LG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2013년 팀을 정규시즌 2위에 올려놓았으며 LG에게 11년 만의 포스트시즌 티켓도 선물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돌연 LG 사령탑에서 자진사퇴했고 6개월만에 KIA 타이거즈의 신임 감독으로 복귀하게 됐다.

/김학철기자 kimc0604@

프로농구 전적 28일

LG	20	22	19	20	**81**
전자랜드	12	16	21	27	**76**

프로배구 전적 28일

대한항공	2	3	OK저축은행
흥국생명	3	0	도로공사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처럼
100%
천연암반수
처음처럼
부드러운
18도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